

2021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분석 중심

2021. 11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http://www.asanct.co.kr> 041)534-3626

□ 연구과제

- 아산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연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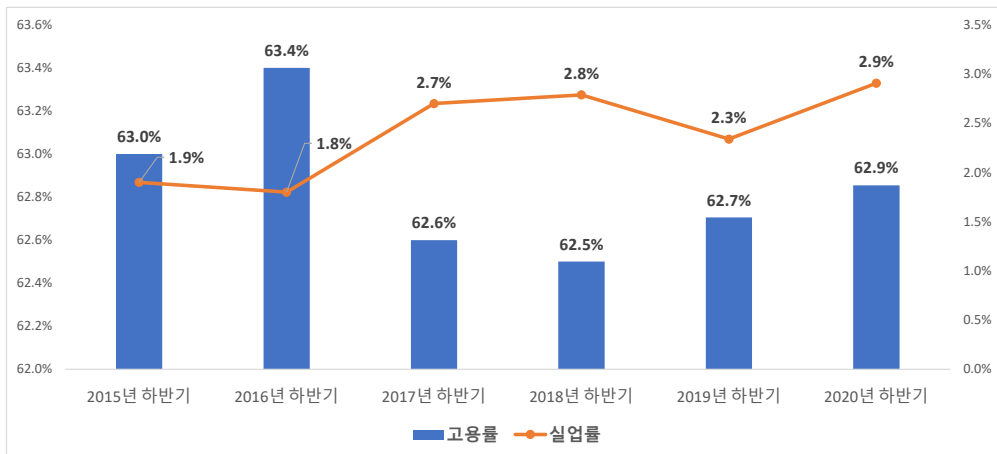
□ 연구수행

- 이 주 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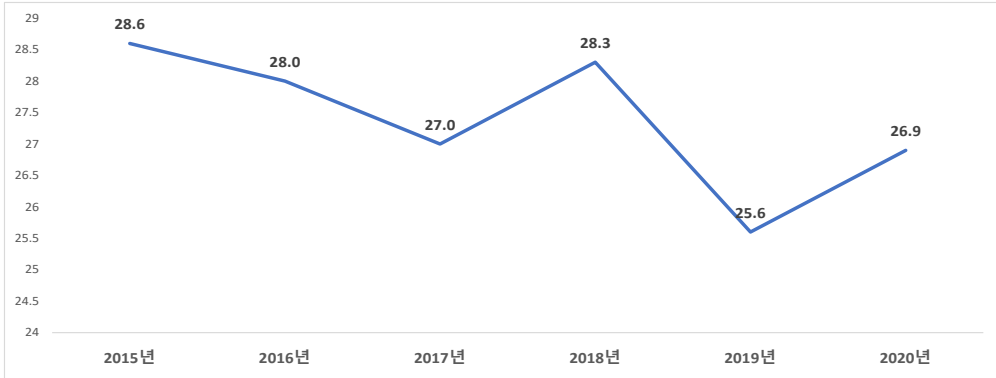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20년 하반기 자료를 기준으로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아산시의 임금노동자 수는 14만 3,51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천9백 명 증가했음. 아산시 임금노동자는 2015년 12만 149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하반기 아산시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고,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음.

[그림 2] 아산시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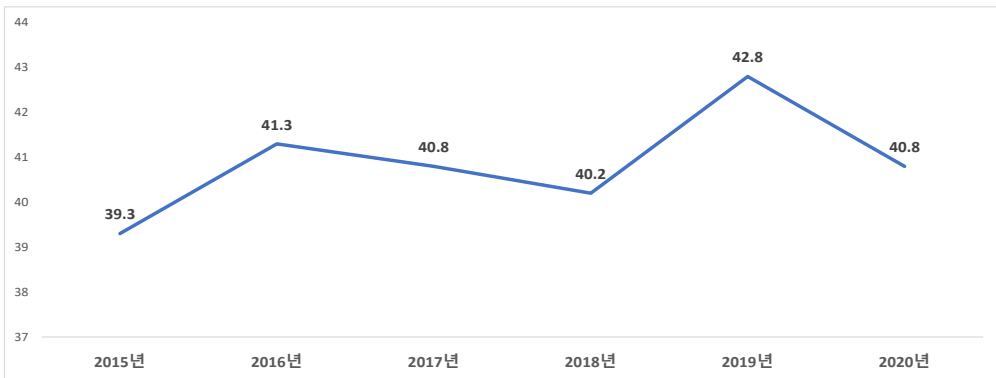
- 2020년 하반기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은 26.9%로,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37.9%)과 비교하면 낮은 편.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 낮은 데는 중대형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은 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아산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28.6%에서 2017년 27.0%까지 완만하게 감소했음. 그 이후에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그림 3]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추이(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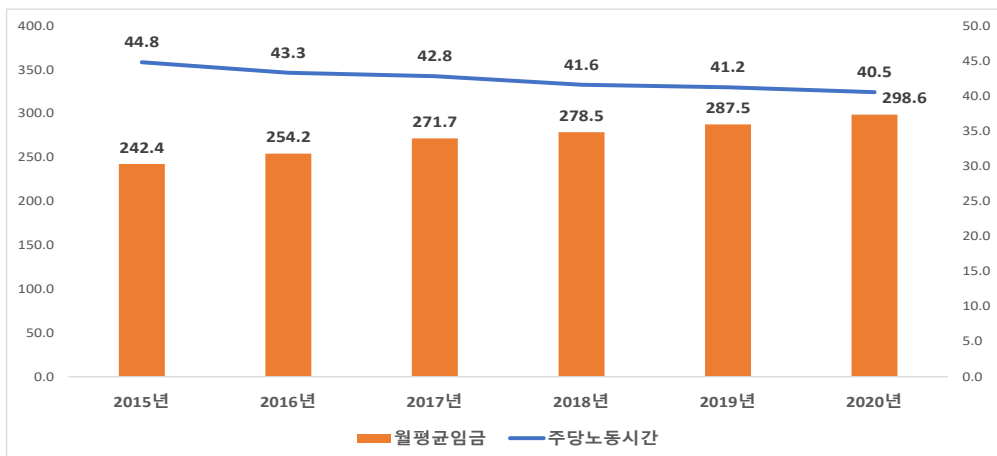
- 2020년 하반기 기준 아산시의 산업별 임금노동자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임금노동자 비중이 40.8%였음. 아산시는 제조업 비중이 40% 전후인 제조업 중심 도시. 제조업에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9.1%로 두 번째였으며, 건설업 7.7%, 교육서비스업 7.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2% 등이 뒤이었음.
- 아산시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전국 평균(5.5%)보다 높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국 평균(11.7%)보다 낮음.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전국 평균과 유사함. 또한,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의 비중은 각각 5.8%와 3.0%로 전국 평균인 10.4%와 6.3%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4] 아산시 노동자 중 제조업 근무자 비율 추이(2015~2020)



- 2020년 하반기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5시간으로 지난 2015년 44.8시간에서 지속해서 단축되고 있음. 단, 한국 전체 평균(39.0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긴 편임.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98.6만 원으로 2019년보다 9.1만 원 상승.
-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아산시의 임금노동자 노동조건은 2015년 이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 하지만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임금증가 비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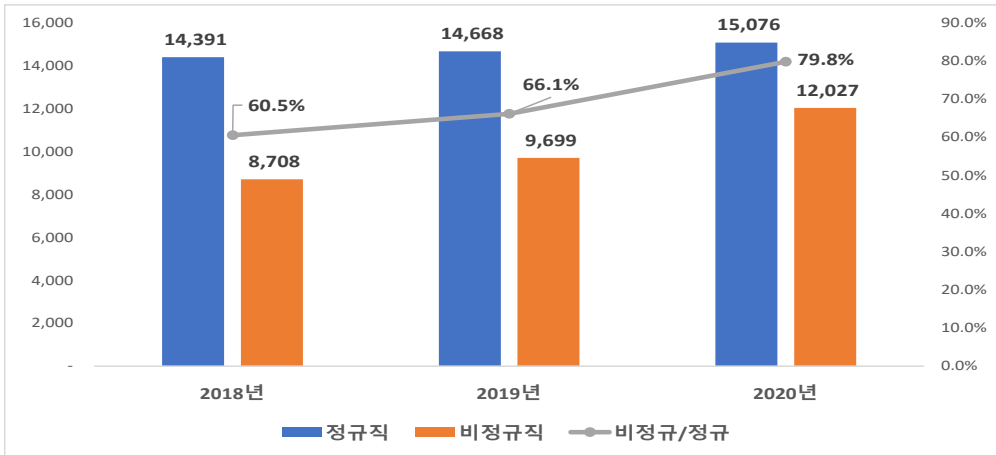
[그림 5] 아산시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 추이(2015~2020)



- 2020년 하반기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의 평균 시급은 15,076원이고 비정규직은 12,027원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3,049원 더 높음. 2019년과 비교하면 정규직은 시급이 408원 인상되었으나, 비정규직은 2,328원 인상됐음. 비정규직의 평균 시급 인상폭이 훨씬 컸음. 그 결과 비정규직 시급은 2019년 정규직의 66.1%였으나 2020년에는 정규직의 79.8%로 격차가 많이 완화됐음.
 -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에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임. 이를테면 기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행태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측됨. 실제로 2019년과 2020년 아산시 비정규직 임금 분포를 비교해보면, 고임금 비중은 늘고 저임금 비중은 줄었음.

[그림 6] 2018-20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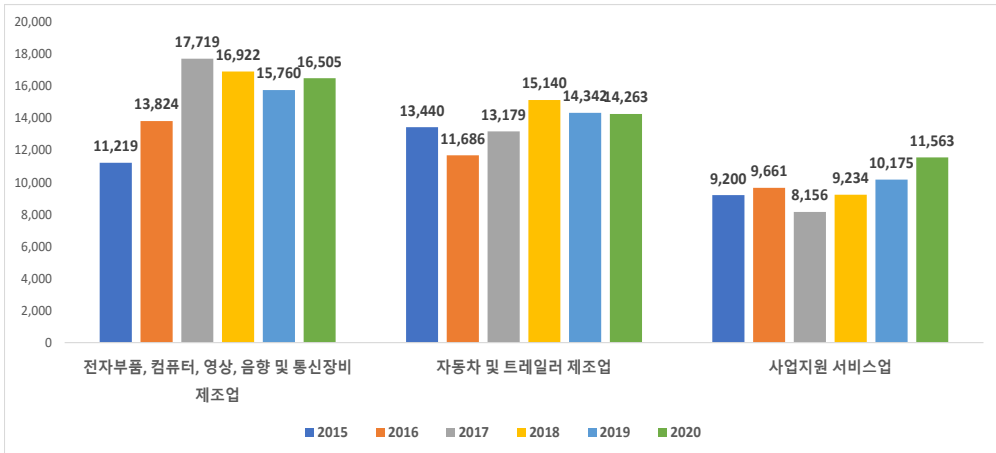


* 시급 계산은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계산.

○ 아산시에서 노동자 수가 많은 산업 중분류상 3개 업종의 개괄적 추이는 다음과 같음. 먼저, 전기전자 제조업 임금노동자는 2016년 1만 3,824명에서 2017년 1만 7,719명으로 급증함. 아산시 전기전자 제조업 노동자는 2020년 기준으로 1만 6,505명으로 산업 중분류에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 수는 2016년 1만 1,686명에서 2018년 1만 5,140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했음. 2020년 기준으로 아산시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는 1만 4,263명으로 전기전자 제조업 다음으로 수가 많음. 마지막으로, 아산시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금노동자는 2016년 9,661명에서 2017년 8,156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019년에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 기준으로 1만 1,563명을 기록하고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아산시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 수보다 교육 서비스업 노동자 수가 더 많았으나, 2020년에는 다시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 수가 더 많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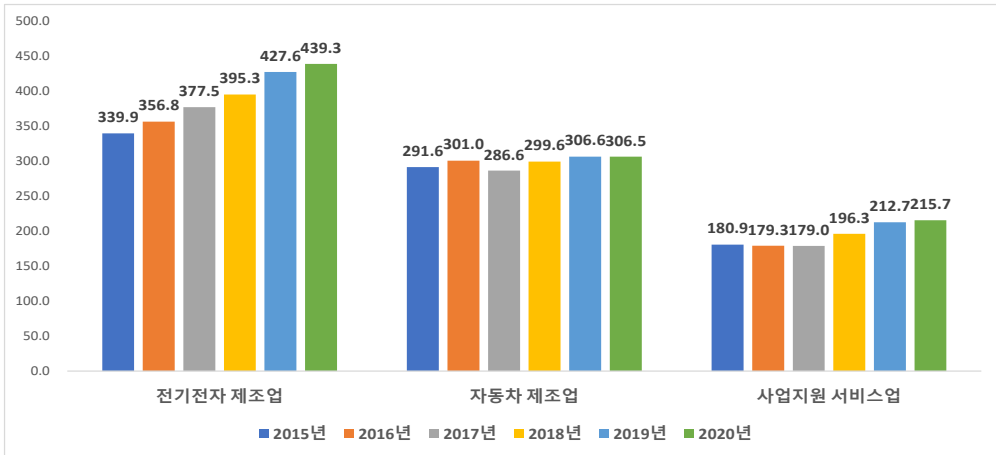
[그림 7] 아산시 주요 3대 업종 노동자 수 추이(2015~2020)



○ 2020년 하반기 아산시 3대 업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전기전자 제조업이 439.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자동차 제조업은 306.5만 원,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15.7만 원이었음. 전기전자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 339.9만 원에서 5년간 99.4만 원이 상승했음. 매년 꾸준히 올랐음. 반면, 자동차 제조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음. 자동차 제조업 월평균 임금은 2015년 291.6만 원에서 5년간 14.9만 원만 올랐고,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15년 180.9만 원에서 5년간 34.8만 원이 올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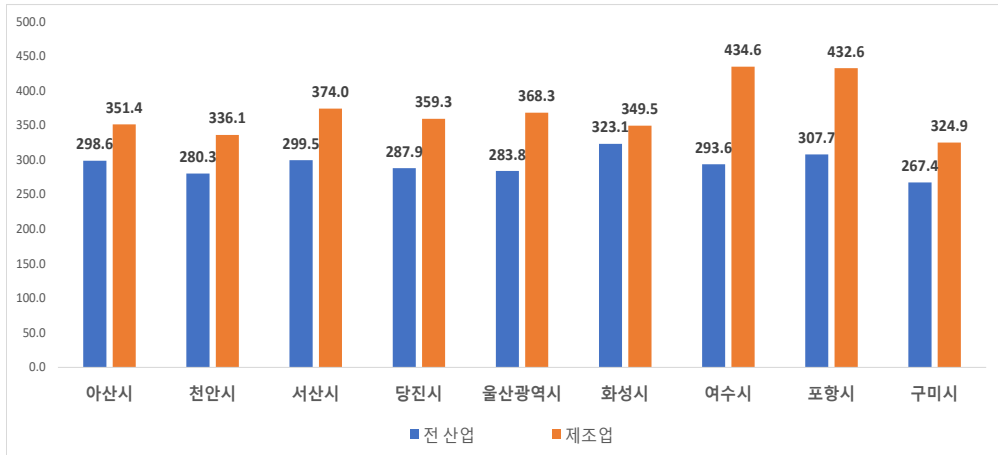
- 한편,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80만 원가량에 정체돼 있다가 그 후로 상승 추세. 이는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단, 2020년에는 2018년 및 2019년보다 상승폭이 많이 줄었음.

[그림 8] 아산시 3대 업종의 월평균 임금 추이(2015~2020)



- 2020년 기준 아산시 월평균 임금(298.6만 원)을 충남 북부 제조업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서산시(299.5만 원)보다는 평균임금이 낮았으나 천안시(280.3만 원)이나 당진시(287.9만 원)보다는 높았음.
- 또한, 2020년 기준 아산시 제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351.4만 원)을 전국의 제조업 중심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천안시, 화성시, 구미시 보다는 높았지만, 서산시, 당진시, 울산광역시, 여주시, 포항시보다는 낮았음. 아산시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조건은 전국 제조업 중심 도시 중에서 대략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에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업종별 평균임금의 차이와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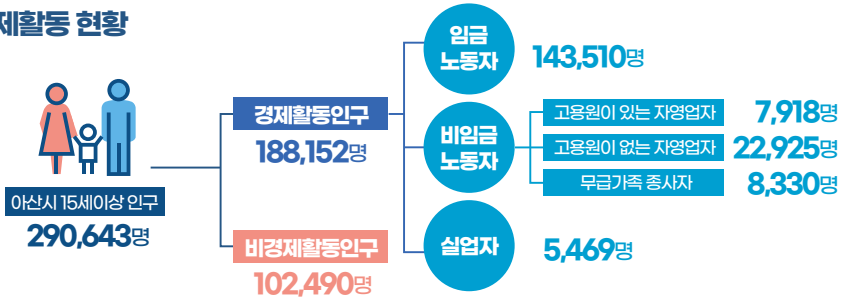
[그림 9] 아산 주변도시 및 주요 제조업 도시 노동자 2020년 월평균 임금 비교



2021 아산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현황 아산시 임금노동자들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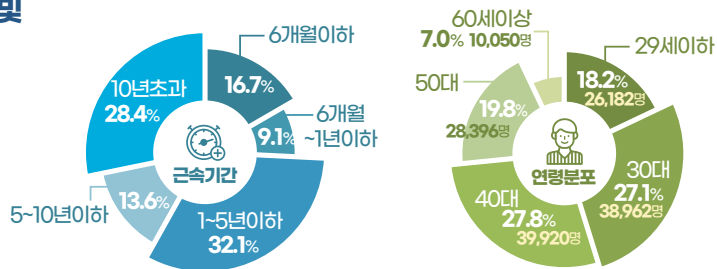
경제활동 현황



고용률과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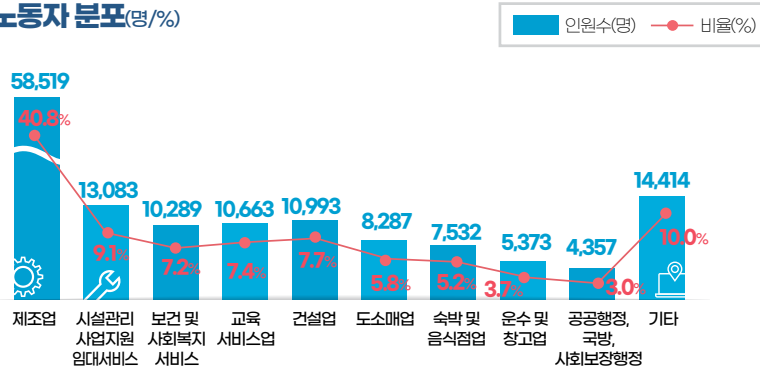
근속기간(%) 및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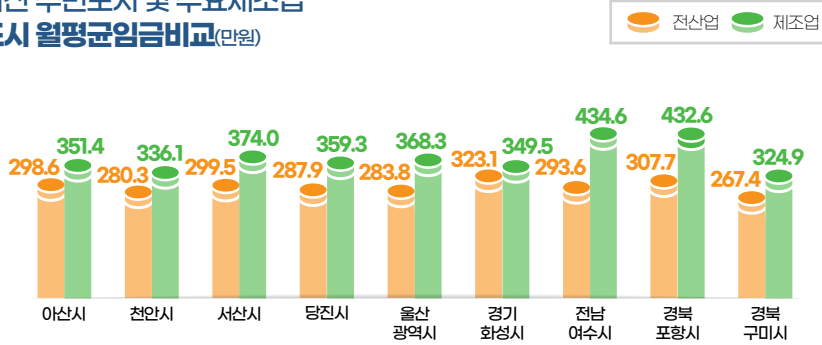
주당노동시간과 임금추이



산업별 노동자 분포(명/%)



아산 주변도시 및 주요제조업 도시 월평균임금비교(만원)



주요 3대업종

노동자수 추이(명)

| 연도 | 전지제조업 | 자동차제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
| 2018년 | 16,922 | 15,140 | 9,234 |
| 2019년 | 15,760 | 14,342 | 10,175 |
| 2020년 | 16,505 | 14,263 | 11,563 |

월평균임금 추이(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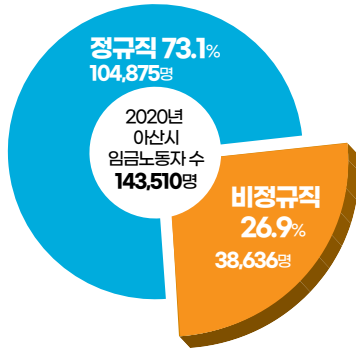
| 연도 | 전지제조업 | 자동차제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
| 2018년 | 395.3 | 299.6 | 196.3 |
| 2019년 | 427.6 | 306.6 | 212.7 |
| 2020년 | 439.3 | 306.5 | 215.7 |

주당노동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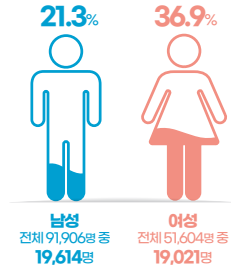
| 연도 | 전지제조업 | 자동차제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
| 2018년 | 42.7 | 43.6 | 43.3 |
| 2019년 | 42.6 | 43.8 | 41.1 |
| 2020년 | 40.8 | 42.5 | 40.3 |

■ 전지제조업 ■ 자동차제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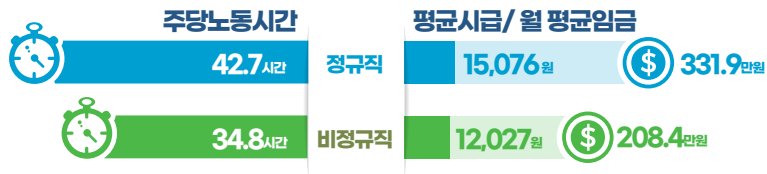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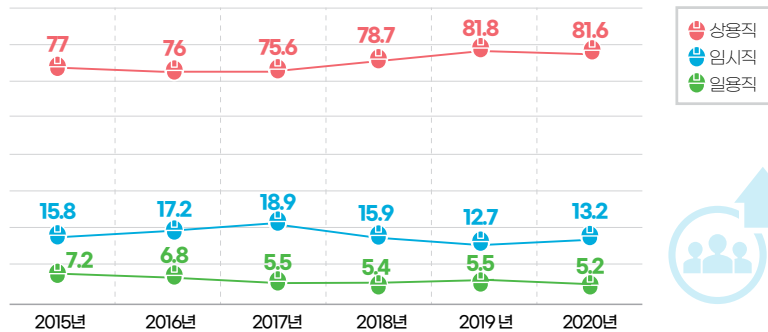
성별 비정규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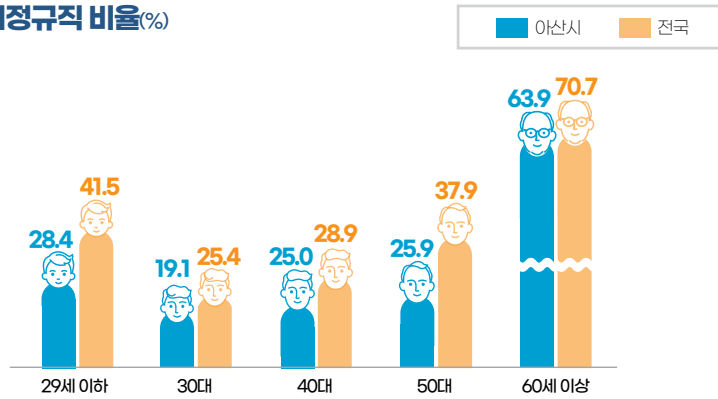
2020년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주당노동시간과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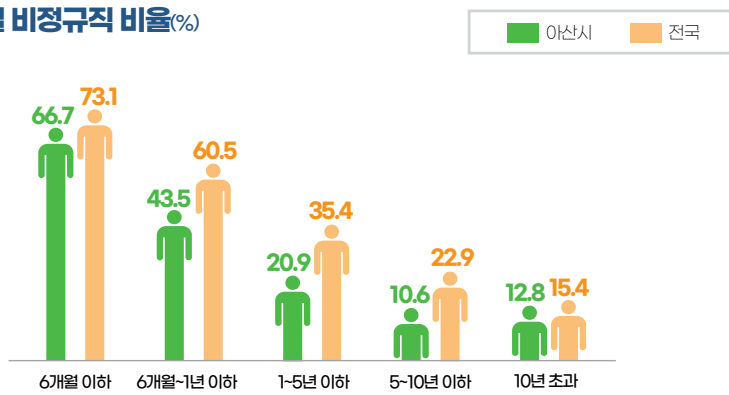
아산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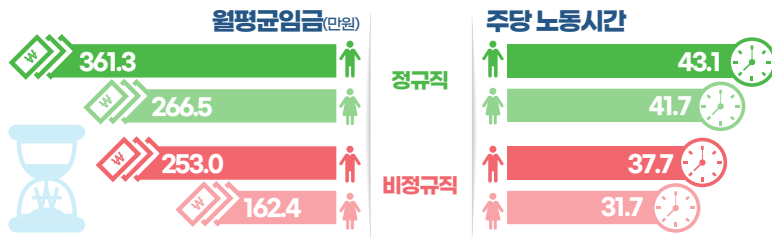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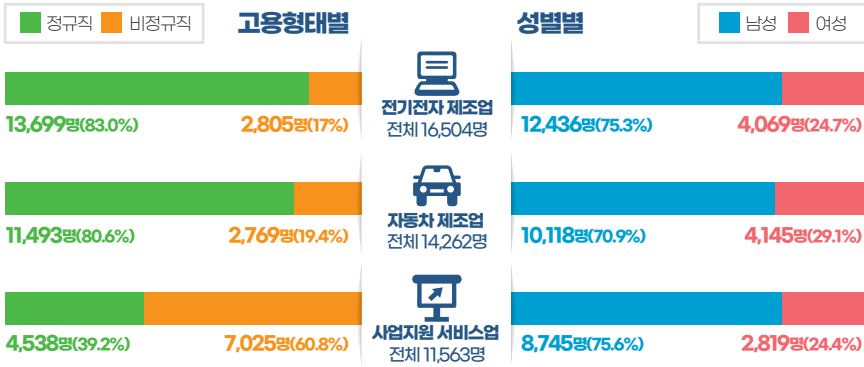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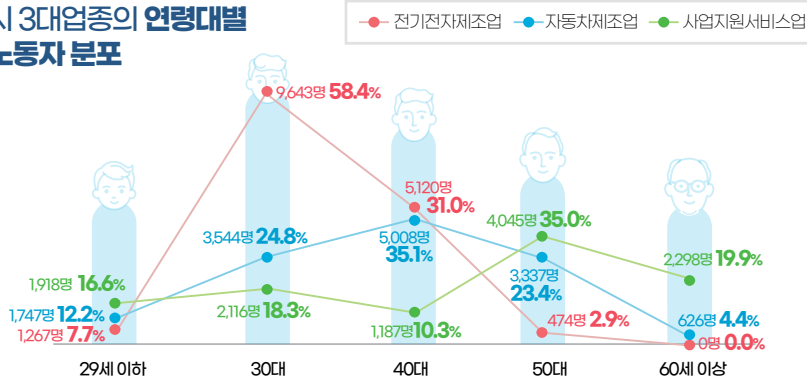
성별/고용형태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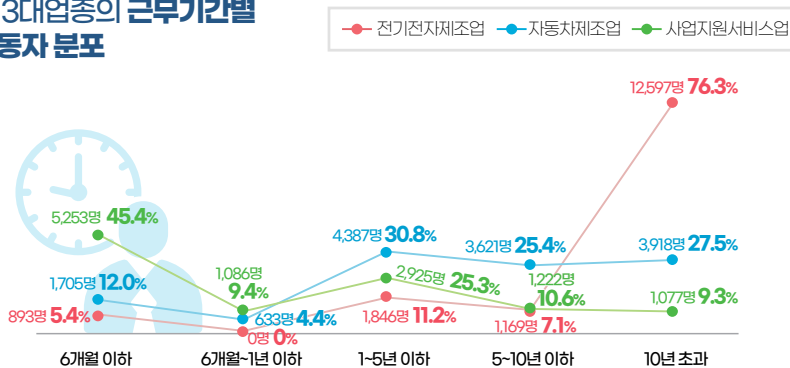
아산시 3대업종의 임금노동자 분포



아산시 3대업종의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분포



아산시 3대업종의 근무기간별 임금노동자 분포



〈차 례〉

| | |
|---------------------------------------|-----------|
|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 3 |
| 1)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 | 3 |
| 2)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내용 | 4 |
| 3) 보고서의 목적 및 분석대상 | 5 |
| 4) 보고서의 비정규직 분류와 한계 | 6 |
| <참고> 통계청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분류 기준 | 7 |
| | |
| 2. 아산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 11 |
| 1) 아산시 15세 이상 인구와 주요 고용 지표 현황 | 11 |
| 2) 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정규직 비율 | 13 |
| 3) 임금노동자의 일반적인 특성 | 15 |
| 4) 주당 노동시간 및 월평균 임금 | 21 |
| 5) 아산시 노동자들의 사업체 소재지 | 24 |
| 6) 아산시 소재 사업체 노동자들의 거주지 | 26 |
| | |
| 3. 아산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비교 | 31 |
| 1) 비정규직 일반 현황 | 31 |
| 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비교 | 38 |
| 3)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간 비교 | 44 |
| | |
| 4. 아산시 주요 3대 업종 임금노동자 현황 | 53 |
| 1) 3대 업종 임금노동자의 일반적인 현황 | 55 |
| 2) 아산시 3대 업종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 60 |
| | |
| 5. 아산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 67 |
| 1) 임금노동자들의 고용형태별 현황 | 67 |
| 2) 임금노동자들의 개인적 현황 | 67 |
| 3) 임금노동자들의 산업별 및 직업별 현황 | 69 |

6. 마무리하며 : 주요 도시 비교와 업종/직종별 취약부문75

<부 록> 2020년 산업 및 직업 중분류 아산시 임금노동자 현황 ..79

〈표 차례〉

| | |
|---|----|
| <표 1> 2020년 하반기 아산시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 11 |
| <표 2> 2020년 아산시 취업자의 내부 구성비율 | 12 |
| <표 3>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정규직 비율 | 14 |
| <표 4>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17 |
| <표 5> 임금노동자들의 산업별 현황 | 19 |
| <표 6> 임금노동자들의 직업별 현황 | 20 |
| <표 7>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 | 22 |
| <표 8> 아산시 거주 임금노동자들의 사업체 소재지 | 25 |
| <표 9> 아산시 소재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거주지 | 27 |
| <표 10>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성별 비정규직 현황 | 32 |
| <표 11>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36 |
| <표 12>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37 |
| <표 13> 아산시 성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38 |
| <표 14> 연령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39 |
| <표 15> 학력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39 |
| <표 16> 근무 기간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40 |
| <표 17> 산업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42 |
| <표 18> 직업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1 | 43 |
| <표 19> 직업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2 | 44 |
| <표 20> 성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45 |
| <표 21> 연령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45 |
| <표 22> 학력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46 |
| <표 23> 근무 기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47 |
| <표 24> 산업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49 |
| <표 25> 직업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1 | 50 |
| <표 26> 직업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2 | 50 |
| <표 27> 아산시 3대 업종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분포 | 55 |
| <표 28> 아산시 3대 업종의 성별 임금노동자 분포 | 56 |

| | |
|--|----|
| <표 29> 아산시 3대 업종의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분포 | 57 |
| <표 30> 아산시 3대 업종의 학력별 임금노동자 분포 | 58 |
| <표 31> 아산시 3대 업종의 근무 기간별 임금노동자 분포 | 59 |
| <표 32> 아산시 3대 업종의 직업별 임금노동자 분포 | 60 |
| <표 33> 아산시 3대 업종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63 |
| <표 34>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현황 | 67 |
| <표 35> 아산시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69 |
| <표 36>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산업별 현황 | 70 |
| <표 37>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직업별 현황 | 71 |
| <표 38> 아산시 사업체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임금 | 72 |
| <표 39>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종(산업 중분류) | 77 |
| <표 40>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직종(직업 중분류) | 78 |
| <표 41> 산업중분류별 임금노동자 분포 | 79 |
| <표 42> 산업중분류별 임금노동자 분포(계속) | 80 |
| <표 43> 직업중분류별 임금노동자 분포 | 81 |
| <표 44> 직업중분류별 임금노동자 분포(계속) | 82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아산시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2015~2020) | 13 |
| [그림 2]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추이(2015~2020) | 15 |
| [그림 3] 아산시 노동자 중 제조업 근무자 비율 추이(2015~2020) | 18 |
| [그림 4] 아산시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 추이(2015~2020) .. | 21 |
| [그림 5] 아산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분포 | 23 |
| [그림 6] 2018-20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 비교 | 24 |
| [그림 7]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 33 |
| [그림 8]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 34 |
| [그림 9]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근무 기간별 비정규직 비율 | 35 |
| [그림 10] 아산시 주요 3대 업종 노동자 수 추이(2015~2020) | 54 |
| [그림 11] 아산시 3대 업종의 월평균 임금 추이(2015~2020) | 61 |
| [그림 12] 아산시 3대 업종의 주당 노동시간 추이(2015~2020) | 62 |
| [그림 13] 아산 주변도시 및 주요 제조업 도시 노동자 2020년 월평균 임금 .. | 76 |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 이 보고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또는 아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지역 수준으로 임금노동자의 현황과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2회 진행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가 거의 유일함. 따라서 1장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보고서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어떠한 분석을 진행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함.

1)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

- 통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196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하기를 요구하는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러한 지역 차원의 통계 수요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실시됐음. 통계청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으로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본조사)와 거의 같은 문항들을 바탕으로 조사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의 시군구 단위별 1)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현황 등의 내용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파악함. 아울러 확대된 조사대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2)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¹⁾ 현황에서 대분류뿐 아니라, 소분류별 현황²⁾까 더욱 세분

1) 2018년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됨. 직업 대분류의 경우에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산업 대분류는 21개로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업종 분류가 조정됐음. 대표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임대업은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와 합쳐졌음.

2) 지역별 현황 자료에서는 산업/직업분류는 중분류까지만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직업 소분류는 전국단위로만 제공하고 있음. 이는 지역-산업 소분류로 하면 사례 수가 적어서

화하여 파악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점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조사대상의 규모를 확대해서 통계적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08~2010년은 연간 1회, 2010년~2012년은 연간 4회(분기별), 그리고 2013년 이후로 연간 2회(반기별) 조사를 진행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규모 : 약 3만 2천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 규모 : 약 19만 9천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만 2천 가구를 포함한 수치)

2)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내용

-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기본항목(5) : ① 가구주와의 관계 ② 성별 ③ 연령 ④ 교육 정도 ⑤ 혼인상태
- 확인사항(4) : ① 주된 활동상태 ② 취업 여부 ③ 일시휴직 여부 ④ 구직활동 여부
- 취업시간(3) : ① 주된 일 시간 ② 다른 일 시간 ③ 총 일한 시간
- 구직사항(6) : ① 취업 가능성 ② 구직경로 및 방법 ③ 구직기간 ④ 취업희망 여부 ⑤ 비구직 사유 ⑥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 직장사항(8) : ① 전직 유무 및 이직 시기 ② 이직 사유 ③ 산업(직장소재지) ④ 직업 ⑤ 종사상지위 ⑥ 현 직장 취업 시기 ⑦ 월평균 임금 ⑧ 고용계약 기간 설정 여부 및 기간
- <지역별 고용조사> 문항 중 기본항목과 직장사항의 문항 중에서 개인특성과 사업체특성을 독립변수(분류 기준)로 하여 총 근무시간(주업+부업), 월평균 임금 등을 종속변수로 임금노동자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함.

조사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임.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별 고용조사>는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는 A형과 산업/직업 소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지역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B형으로 구분해서 제공됨.

- 1) 개인특성 및 사업체특성(독립변수) :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산업(중분류), 직업(중분류), 종사상지위(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노동자는 상용, 임시, 일용만 해당), 직장 시작시기(근무 기간), 사업체 소재지(근무지)
- 2) 노동현황(종속변수) : 주된 일 시간/다른 일 시간/총 일한 시간, 월평균 임금

3) 보고서의 목적 및 분석대상

- 이 보고서는 일차적으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위치한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현황 및 고용형태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산시의 산업 및 직종별로 취약한 부문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은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로는 앞서 언급한 <지역별 고용조사>가 유일함. 따라서 2020년 10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2021년 6월에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황 및 고용형태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37만 7,352명(취업자 22만 4,443명, 실업자 6,559명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14만 6,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아산시는 2,243명의 15세 이상 인구가 실제 설문조사에 응답.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응답자 중에서 아산시의 취업자는 1,358명, 실업자는 32명이 응답했으며,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 1,007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1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0명, 무급가족종사자 80명이 응답하였음.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853명이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38.0%를 차지.
 - 2장 이하의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대상에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 임금노동자 수를 분석에서 활용.

4) 보고서의 비정규직 분류와 한계

-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사이기에 통계청에서 매년 8월에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이하, <경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의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음. 즉, <경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하는 것처럼, 한시직,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직, 파견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을 구분할 수 없음.
- 다만 <지역별 고용조사>의 추가 문항을 활용하여 소위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은 파악이 가능. 따라서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현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확인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새롭게 분류함. 이를 위해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고용계약 기간 설정 여부, 총 일한 시간 3가지 변수를 활용함.³⁾
- 상용직의 경우 정규/비정규직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이하 계약직이 명확함.
 - 따라서 상용직 중에서 비정규직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서, ‘고용계약 기간을 정했는가’를 통해 기간제 여부를, ‘주당 노동시간 정보’를 통해서 시간제 여부를 확인 가능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정규직 분류 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분류 작업을 진행했음.

3) <경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비전형 고용(파견, 용역, 특수형태고용, 호출근로, 가내근로) 등의 비정규직 유형도 조사하여 정규/비정규직을 분류하고 있으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조사문항이 적어서 소위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은 파악할 수 없음.

- ① 임시직과 일용직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② 상용직이면서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는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③ 상용직이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④ 상용직 중에서 ‘계약직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의 중복을 제거하고 정규직으로 정의.

○ 그럼에도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의 소위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비정규직 규모는 실제 아산시 비정규직 규모를 과소추계한 것임.

- 특히, 사용자가 둘 이상인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이 아닌 임금노동자로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큼. 그리고 특수고용은 자영업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큼.

○ 비정규직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차원에서 임금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 실태를 고용형태와 임금,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만 분류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비정규직은 ‘지역별 고용조사 비정규직’이라고도 할 수 있음.

<참고> 통계청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분류 기준

□ 상용직

-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소정의 채용 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직

-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한시적 기간(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직

-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2

아산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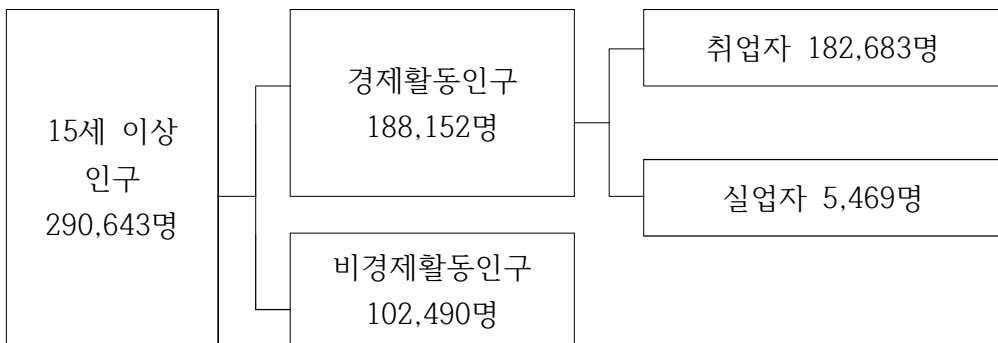
2. 아산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 2장에서는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함. 이에 앞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산시 고용 관련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1) 아산시 15세 이상 인구와 주요 고용 지표 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우선 경제활동(economical activity) 여부에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⁴⁾로 구분함. 비경제활동인구는 학생, 주부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 들임.
-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확인한 아산시의 15세 이상 추정 인구는 29만 643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8만 8,152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0만 2,490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18만 2,683명, 실업자는 5,469명으로 확인됨.

<표 1> 2020년 하반기 아산시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4) 실업자의 정의는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바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임.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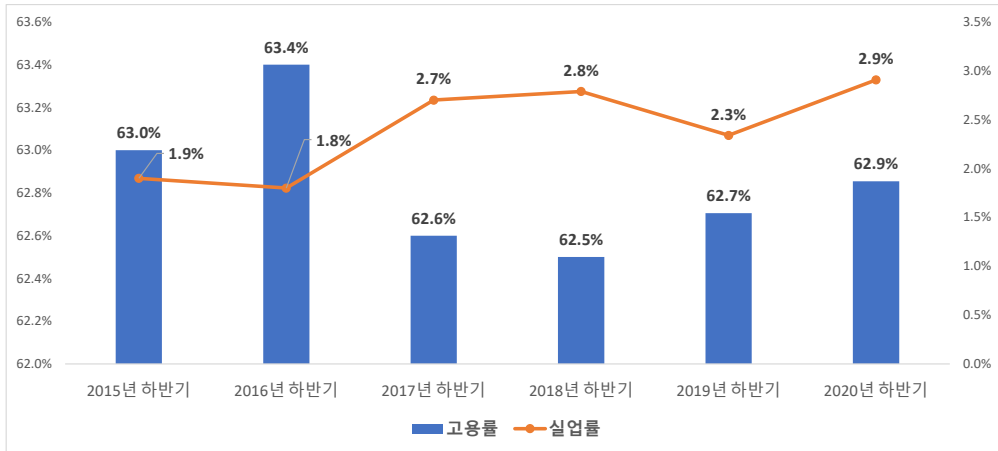
- 2020년 아산시 취업자 내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상용, 임시, 일용) 비중이 78.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918명으로 4.3%였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2,925명으로 12.5%를 차지.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수는 8,330명으로 취업자의 4.6%였음.

<표 2> 2020년 아산시 취업자의 내부 구성비율

| 취업자 | | 인원수 | 비율(%) |
|------------|-------------|---------|-------|
| 임금 노동자 | 상용직 | 117,146 | 64.1 |
| | 임시직 | 18,935 | 10.4 |
| | 일용직 | 7,430 | 4.1 |
| 비임금 노동자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7,918 | 4.3 |
|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22,925 | 12.5 |
| | 무급가족종사자 | 8,330 | 4.6 |
| 합계 | | 182,683 | 100 |

- 2020년 하반기 아산시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64.7%,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은 62.9%,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 비율)은 2.9%임. 전국 평균(고용률 74.0% 실업률 3.6%)과 비교해 실업률은 높지 않으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최근 5년간 아산시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아산시 고용률은 2018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하여 개선되고 있고, 실업률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2015~16년의 고용률이나 실업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악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1] 아산시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2015~2020)



2) 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정규직 비율

- 2020년 하반기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⁵⁾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⁶⁾ 아산시 임금노동자 수는 14만 3,510명임.⁷⁾ 참고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2019년 한국의 전체 임금노동자 수는 1,967만 9,873명임.⁸⁾
- 종사상지위별로 임금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18.4%로 지난해 18.2%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한국의 전체 임시일용직 비율 24.2%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아산시의 정규직 비율은 73.1%로, 전국 평균 62.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아산시의 고용형태별 현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

5) 임금노동자는 취업자의 6가지 유형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로 집계함

6) 아래부터 '2020년'은 '2020년 하반기'를 의미함.

7) 아산시 임금노동자 수는 표본조사 인원에 가중치를 곱한 값임. 성, 연령, 산업 등으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경우, 반올림 등으로 인해 총계와 1~2명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 참고로 2020년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한국의 임금노동자 수는 2,044만 1천 명임. <지역별 고용조사>의 전국 가중치는 이 수치로 맞춰져 있으나, 시군구별 가중치는 임금노동자 규모를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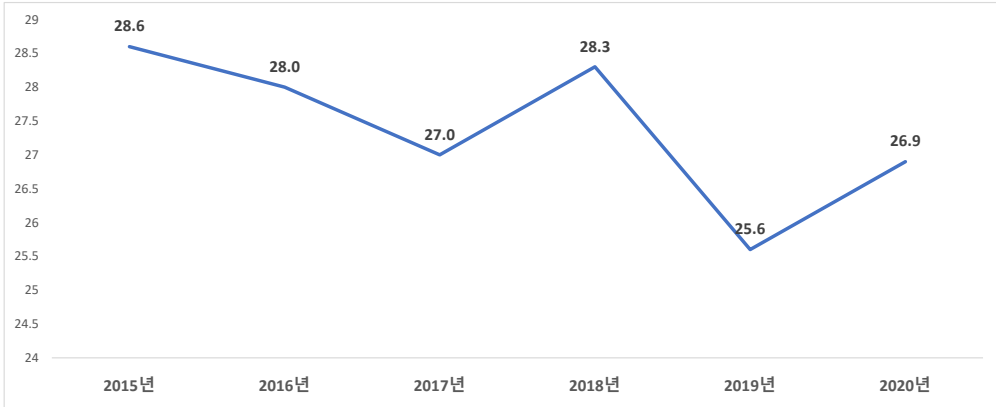
음. 비정규직 비율은 26.9%로 낮은 편인데, 경제구조에서 주로 정규직 고용에 기초한 (대규모)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산시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정규직 비율

| 구분 | 아산시 | | 전국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상용직 | 117,146 | 81.6 | 14,924,755 | 75.8 |
| 임시직 | 18,935 | 13.2 | 3,556,213 | 18.1 |
| 일용직 | 7,430 | 5.2 | 1,198,905 | 6.1 |
| 정규직 | 104,875 | 73.1 | 12,220,612 | 62.1 |
| 비정규직 | 38,636 | 26.9 | 7,459,261 | 37.9 |
| 합계 | 143,510 | 100 | 19,679,873 | 100 |

- 2015년 이후 아산시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5년 비정규직 비율 28.6%에서, 이후 2017년 비정규직 비율 27.0%까지 완만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28.3%로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아졌음. 2019년에는 25.6%, 2020년에는 26.9%를 기록했다. 2019년보다 2020년 1.3%p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은 낮은 편임.

[그림 2]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추이(2015~2020)



3) 임금노동자의 일반적인 특성

(1) 노동자들의 개인적 특성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성별 분포는 남성이 64.0%, 여성이 36.0%임. 전국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남성 56.2%, 여성 43.8%인 것과 비교하면 아산시는 노동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아산시가 전자, 자동차 등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도시라는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임.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연령별대별 분포에서는 40대가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는 30~40대가 임금노동자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아산시의 임금노동자 중 40대 이하 비중은 73.1%로 전국 평균 63.9%보다 9.2%p 높음. 아산시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중심인 제조업 도시라고 할 수 있음.
 - 2017년 이후 조금씩 30-40대의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산시는 50세 이상 고령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젊은 도시임.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를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 이상 노동자가

52.1%로 비중이 가장 높음. 2016년까지는 고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 이후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음.

- 전국의 학력별 분포와 비교했을 때, 아산시는 전문대졸 이상 노동자의 비중과 중졸이하 노동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고졸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고령노동자의 비중이 낮아서 중졸이하 노동자 비중은 낮은 편이며, 30~40대 노동자들은 제조업 사업장들에서 생산기능직으로 일하는 고졸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졸 노동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현재 사업체에서 근속기간을 확인한 결과, 1년 초과 5년 이하의 비중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는 근속기간 10년을 초과한 비중이 28.4%임.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전국 평균(23.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작년(25.9%)보다 늘었음. 제조대기업의 장기근속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10년 초과 근무자 비중이 높고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편, 근속기간 1년 이하인 노동자는 25.8%로 전국 평균 27.7%와 비교하면 약간 낮은 편임.

<표 4>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 구분 | 아산시 | | 전국 |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성 | 남성 | 91,906 | 64.0 | 11,058,699 | 56.2 |
| | 여성 | 51,604 | 36.0 | 8,621,174 | 43.8 |
| 연령 | 29세 이하 | 26,182 | 18.2 | 3,250,252 | 16.5 |
| | 30대 | 38,962 | 27.1 | 4,481,415 | 22.8 |
| | 40대 | 39,920 | 27.8 | 4,848,617 | 24.6 |
| | 50대 | 28,396 | 19.8 | 4,414,746 | 22.4 |
| | 60세 이상 | 10,050 | 7.0 | 2,684,843 | 13.6 |
| 학력 | 중졸이하 | 12,055 | 8.4 | 2,064,024 | 10.5 |
| | 고졸 | 56,758 | 39.5 | 6,910,835 | 35.1 |
| | 전문대졸이상 | 74,697 | 52.1 | 10,705,014 | 54.4 |
| 근속 기간 | 6개월 이하 | 23,983 | 16.7 | 3,344,585 | 17.0 |
| | 6개월~1년 이하 | 13,102 | 9.1 | 2,111,298 | 10.7 |
| | 1~5년 이하 | 46,117 | 32.1 | 6,625,194 | 33.7 |
| | 5~10년 이하 | 19,556 | 13.6 | 2,926,323 | 14.9 |
| | 10년 초과 | 40,753 | 28.4 | 4,672,472 | 23.7 |
| 합계 | | 143,510 | 100 | 19,679,873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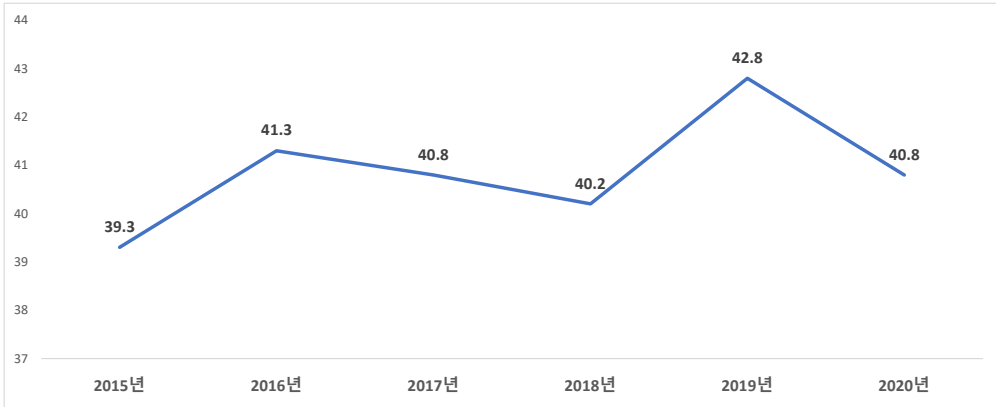
(2) 산업별 노동자 분포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이 40.8%로 가장 높음. 2020년 한국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제조업 노동자 비중은 19.4%임.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아산시는 그 내에서도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아산시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2016년 41.3%에서 다소 줄어들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하여 42.8%를 기록했음. 2020년에는 그보다 2.0%p 낮은 40.8%로 나타났음.

[그림 3] 아산시 노동자 중 제조업 근무자 비율 추이(2015~2020)



○ 아산시 임금노동자를 산업 대분류로 구분하면, 제조업에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9.1%로 두 번째였으며, 건설업 7.7%, 교육서비스업 7.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2% 등이 뒤이었음. 아산시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전국 평균(5.5%)보다 높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국 평균(11.7%)보다 낮음.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전국 평균과 유사함. 한편,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의 비중은 각각 5.8%와 3.0%로 전국 평균인 10.4%와 6.3%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제조업 도시로서 아산시가 상업이나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부문은 상대적으로 덜 발전했음을 의미함. 아울러 아산시는 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으나 과거와 비교해 증가.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은 저임금이 다수이기에 앞으로 이 분야의 노동자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5> 임금노동자들의 산업별 현황

| 산업명 | 아산시 | | 전국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농림어업 | 264 | 0.2 | 116,284 | 0.6 |
| 광업 | 126 | 0.1 | 10,856 | 0.1 |
| 제조업 | 58,519 | 40.8 | 3,823,985 | 19.4 |
|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 247 | 0.2 | 81,495 | 0.4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 1,261 | 0.9 | 118,850 | 0.6 |
| 건설업 | 10,993 | 7.7 | 1,488,575 | 7.6 |
| 도소매업 | 8,287 | 5.8 | 2,043,784 | 10.4 |
| 운수및창고업 | 5,373 | 3.7 | 823,098 | 4.2 |
| 숙박및음식점업 | 7,532 | 5.2 | 1,099,789 | 5.6 |
| 정보통신업 | 1,151 | 0.8 | 774,217 | 3.9 |
| 금융보험업 | 2,115 | 1.5 | 759,991 | 3.9 |
| 부동산업 | 1,829 | 1.3 | 363,700 | 1.8 |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3,850 | 2.7 | 1,027,753 | 5.2 |
| 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 13,083 | 9.1 | 1,082,149 | 5.5 |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4,357 | 3.0 | 1,242,329 | 6.3 |
| 교육서비스업 | 10,663 | 7.4 | 1,559,347 | 7.9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0,289 | 7.2 | 2,296,558 | 11.7 |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1,571 | 1.1 | 297,545 | 1.5 |
| 협회,단체,수리및기타서비스업 | 2,000 | 1.4 | 594,010 | 3.0 |
| 가구내고용 및 자가소비 | | | 66,253 | 0.3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9,306 | 0.0 |
| 합계 | 143,510 | 100 | 19,679,873 | 100 |

(3) 직업별 노동자 분포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직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비율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전국 평균 11.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제조업 비율이 40%를 넘는 아산시의 산업적인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뒤로는 사무종사자 22.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6.5%로 순이었음.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23.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아산시 노동자 직업분포의 특징임.
- 한편, 아산시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은 10.4%로 전국 평균 (8.6%)보다는 높지만, 제조업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임.
 - 최근 아산시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제조업 노동자 중에는 사무직이 많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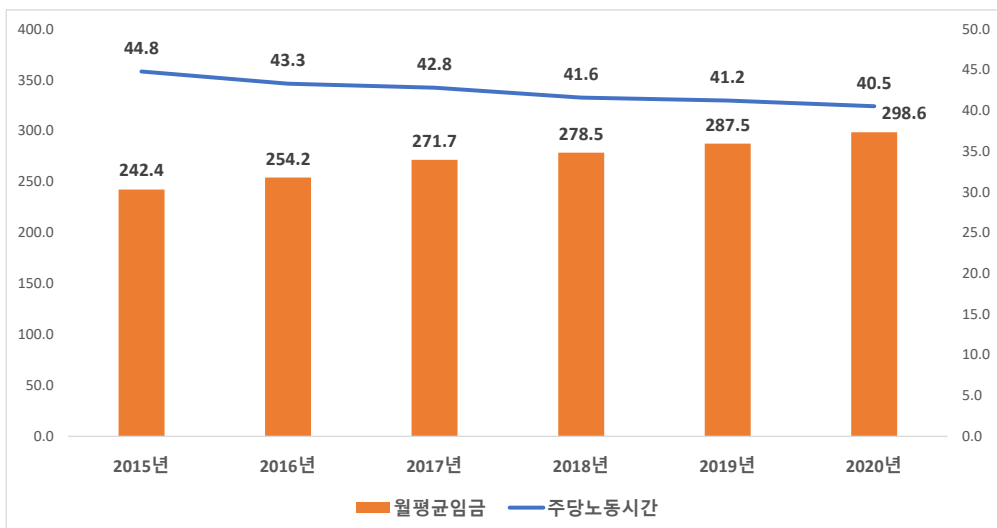
<표 6> 임금노동자들의 직업별 현황

| 직업 | 아산시 | | 전국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관리자 | 997 | 0.7 | 251,017 | 1.3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3,608 | 16.5 | 4,712,464 | 23.9 |
| 사무종사자 | 32,570 | 22.7 | 4,422,916 | 22.5 |
| 서비스종사자 | 10,333 | 7.2 | 1,876,787 | 9.5 |
| 판매종사자 | 4,740 | 3.3 | 1,425,375 | 7.2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144 | 0.1 | 49,875 | 0.3 |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14,996 | 10.4 | 1,698,236 | 8.6 |
|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 34,735 | 24.2 | 2,196,826 | 11.2 |
| 단순노무 종사자 | 21,386 | 14.9 | 3,046,379 | 15.5 |
| 합계 | 143,510 | 100 | 19,679,873 | 100 |

4) 주당 노동시간 및 월평균 임금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5시간으로 지난 2015년 44.8시간 이후 완만하지만 지속해서 단축되고 있음. 단, 2020년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39.0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긴 편임.
 -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98.6만 원으로 2019년보다 9.1만 원 상승했음.
 - 2015년 이후 한동안 월평균 임금이 10만 원 이상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7만 원대, 2019년과 2020년에는 9만 원대 상승으로 속도가 최근 둔화됐음.
-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아산시의 임금노동자 노동 조건은 2015년 이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하지만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임금증가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그림 4] 아산시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 추이(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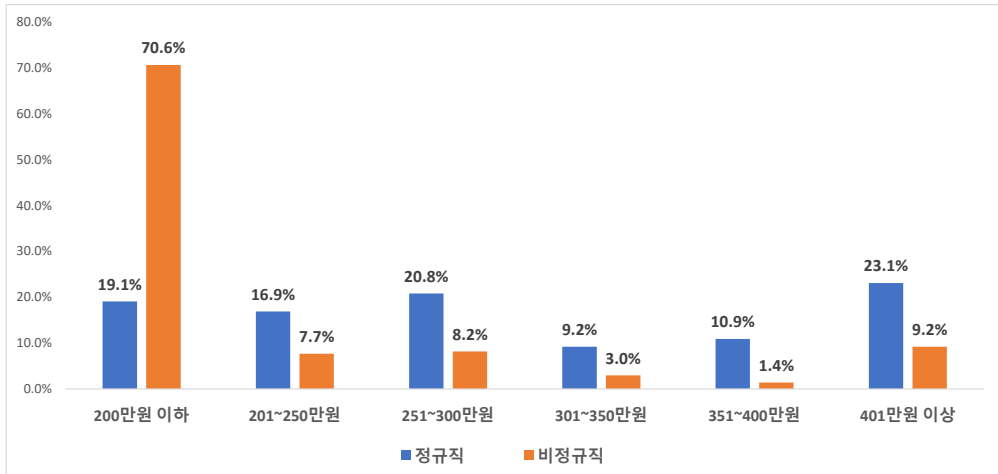
-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고용형태별로 확인해 보면, 2020년 아산시 정규직은 각각 42.7시간과 331.9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43.1시간과 332.2만 원과 유사했음.
- 한편, 2020년 아산시 비정규직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이 각각 34.8시간과 208.4만 원이었음. 정규직과 비교해 주당 노동시간은 7.9시간 짧고 월평균 임금은 123.5만 원 적었음.
 - 전국 평균 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은 각각 33.2시간과 182.6만 원으로, 이와 비교해 아산시 비정규직은 노동시간은 1.6시간 길고 임금은 25.8만 원 많음

<표 7>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

| | | 아산시 | 전국 |
|--------------------|--------|-------|-------|
| 주당 노동시간 (시) | 정규직 | 42.7 | 43.1 |
| | 비정규직 | 34.8 | 33.2 |
| | 노동자 평균 | 40.5 | 39.3 |
| 월평균 임금 (만 원) | 정규직 | 331.9 | 332.2 |
| | 비정규직 | 208.4 | 182.6 |
| | 노동자 평균 | 298.6 | 275.5 |

- 아울러 월평균 임금의 구간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은 401만 원 이상이 23.1%로 가장 많았음. 그 뒤를 251~300만 원(20.8%)과 200만 원 이하(19.1%)가 있었음.
- 한편, 비정규직은 월 200만 원 이하가 70.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줄었음.
- 아산시 고용형태별 노동자 임금 분포는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은 저임금에 집중돼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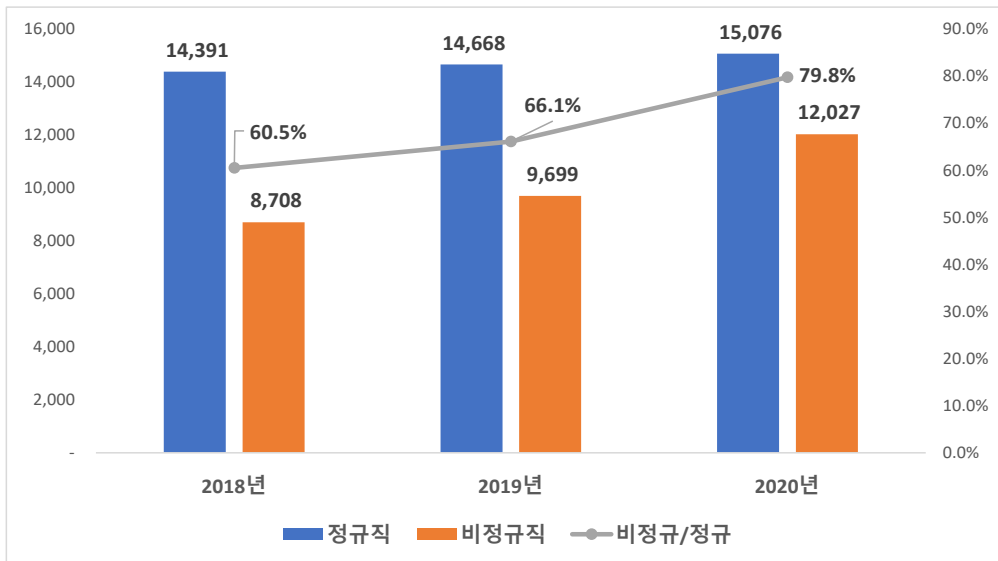
[그림 5] 아산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분포



- 이렇듯 월평균 임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런 한편, 파트타임이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비정규직 특성이 반영된 것임, 즉 비정규직은 더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더라도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이유로 더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아산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추정해서 계산하였음.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의 평균 시급은 15,076원이고 비정규직은 12,027원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3,049원 더 높음.
- 한편,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정규직은 시급이 408원 인상되었으나, 비정규직은 2,328원 인상됐음. 비정규직의 평균 시급 인상폭이 훨씬 컸음.
 - 그 결과 비정규직 시급은 2019년 정규직의 66.1%였으나 2020년에는 정규직의 79.8%로 시급 격차가 크게 완화됐음.

- 비정규직의 시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기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행태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측됨.
- 실제로 아산시 비정규직을 보면, 2019년보다 2020년에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비정규 중에서 고임금 비중은 늘고 저임금 비중은 줄었음. 2019년 아산시 비정규직 중에서 월평균 임금 250만 이하의 비중은 87.4%이고, 350만 원 초과 비중은 3.2%였으나, 2020년에는 각각 78.3%와 10.6%를 기록했음.

[그림 6] 2018-20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 비교



* 시급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

5) 아산시 노동자들의 사업체 소재지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취업자들이 속해 있는 사업체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취업자들의 지역 간 이동의 특성을 확인 가능함.

- 2020년 기준 사업체의 소재지 정보를 통해서 임금노동자들의 지역 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아산시 노동자들이 아산시에서 일하는 비율이 71.1%로 가장 높았음. 둘째, 아산시에 인접한 천안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16.7%였음. 셋째, 충남 이외 지역인 평택(2.1%)이나 화성(1.3%)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소수가 있음.
- 인접한 천안을 제외하면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임금노동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음.

<표 8> 아산시 거주 임금노동자들의 사업체 소재지

| 지역명 | 아산시 | | 지역명 | 아산시 | |
|---------|---------|-------|-------|---------|-------|
| | 인원수 | 비율(%) | | 인원수 | 비율(%) |
| 아산시 | 102,037 | 71.1 | 성남시 | 396 | 0.3 |
| 천안시 | 23,960 | 16.7 | 용인시 | 284 | 0.2 |
| 평택시 | 2,942 | 2.1 | 논산시 | 259 | 0.2 |
| 당진시 | 2,449 | 1.7 | 과천시 | 236 | 0.2 |
| 예산군 | 1,899 | 1.3 | 안양시 | 235 | 0.2 |
| 화성시 | 1,858 | 1.3 | 서산시 | 222 | 0.2 |
| 서울특별시 | 1,249 | 0.9 | 계룡시 | 138 | 0.1 |
| 대전광역시 | 871 | 0.6 | 청양군 | 138 | 0.1 |
| 공주시 | 716 | 0.5 | 인천광역시 | 126 | 0.1 |
| 안성시 | 645 | 0.4 | 수원시 | 126 | 0.1 |
| 안산시 | 639 | 0.4 | 부천시 | 126 | 0.1 |
| 홍성군 | 630 | 0.4 | 광주시 | 121 | 0.1 |
| 청주시 | 512 | 0.4 | 여주시 | 121 | 0.1 |
| 세종특별자치시 | 466 | 0.3 | 김제시 | 112 | 0.1 |
| | | | 합계 | 143,510 | 100 |

6) 아산시 소재 사업체 노동자들의 거주지

- 다음으로 아산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2020년 아산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6만 3,870명으로, 2019년보다 6,475명 감소했음.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추정됨. 다음으로, 이를 아산시 거주 노동자가 14만 3,510명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아산시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아산시 소재 사업체들의 일자리 숫자가 아산시에 사는 임금노동자 수보다 많다는 점은 아산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다른 지역에서 아산시 사업체로 일하러 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런 한편, 아산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아산시 정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음.

- 아산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거주지는 아산시(10만 2,037명), 천안시(4만 6,412명) 순임. 아산에서 천안 직장으로 가는 노동자(2만 3,960명)보다, 천안에 살면서 아산 직장으로 오는 경우가 2배 가까이 많음.
 - 충남 외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 평택에서 아산까지 출퇴근하는 노동자 수가 4,132명(2.5%)으로 상대적으로 다수임.

<표 9> 아산시 소재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거주지

| 지역명 | 아산시 | | 지역명 | 아산시 | |
|---------|---------|-------|-------|--------|-------|
| | 인원수 | 비율(%) | | 인원수 | 비율(%) |
| 아산시 | 102,037 | 62.3 | 공주시 | 231 | 0.1 |
| 천안시 | 46,412 | 28.3 | 오산시 | 219 | 0.1 |
| 평택시 | 4,132 | 2.5 | 청주시 | 205 | 0.1 |
| 화성시 | 1,351 | 0.8 | 부산광역시 | 200 | 0.1 |
| 용인시 | 1,213 | 0.7 | 대전광역시 | 173 | 0.1 |
| 서울특별시 | 1,208 | 0.7 | 광명시 | 145 | 0.1 |
| 예산군 | 1,173 | 0.7 | 군포시 | 85 | 0.1 |
| 안성시 | 1,144 | 0.7 | 구리시 | 80 | 0 |
| 성남시 | 806 | 0.5 | 태안군 | 78 | 0 |
| 세종특별자치시 | 469 | 0.3 | 옥천군 | 52 | 0 |
| 수원시 | 460 | 0.3 | 진천군 | 46 | 0 |
| 인천광역시 | 450 | 0.3 | 담양군 | 40 | 0 |
| 홍성군 | 381 | 0.2 | 가평군 | 38 | 0 |
| 당진시 | 353 | 0.2 | 과천시 | 32 | 0 |
| 안양시 | 335 | 0.2 | 계룡시 | 16 | 0 |
| 고양시 | 304 | 0.2 | 합계 | 163870 | 100 |

3

아산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비교

3. 아산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비교

-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임. 여기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문항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과 기간제로 분류된 상용직들을 비정규직으로 재분류하고, 기존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새롭게 비정규직을 규정했음. 이를 통해서 실제 아산시의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현황이나 특성 등을 제한적이지만 정규직과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 앞서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현황에서 2020년 아산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26.9%이며, 전국 평균 37.9%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했음.

1) 비정규직 일반 현황

(1) 성별 비정규직 현황

- 2020년 기준으로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아산시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1.3%로, 전국 평균 비율 31.2%보다 9.9%p가 낮음. 아산시에는 중·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남성 노동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산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36.9%로, 남성보다 15.6%가 높음. 그러나 전국 여성 평균 비정규직 비율 46.5%보다는 9.6%p가 낮음.
-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

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산시의 임금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상태일 것으로 추정됨.

<표 10>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성별 비정규직 현황

| | | 정규직 | 비정규직(a) | 전체노동자(b) | (a/b)*100 |
|----|-----|-----------|-----------|------------|-----------|
| 남성 | 아산시 | 72,292 | 19,614 | 91,906 | 21.3% |
| | 전국 | 7,612,526 | 3,446,174 | 11,058,700 | 31.2% |
| 여성 | 아산시 | 32,583 | 19,021 | 51,604 | 36.9% |
| | 전국 | 4,608,086 | 4,013,087 | 8,621,173 | 4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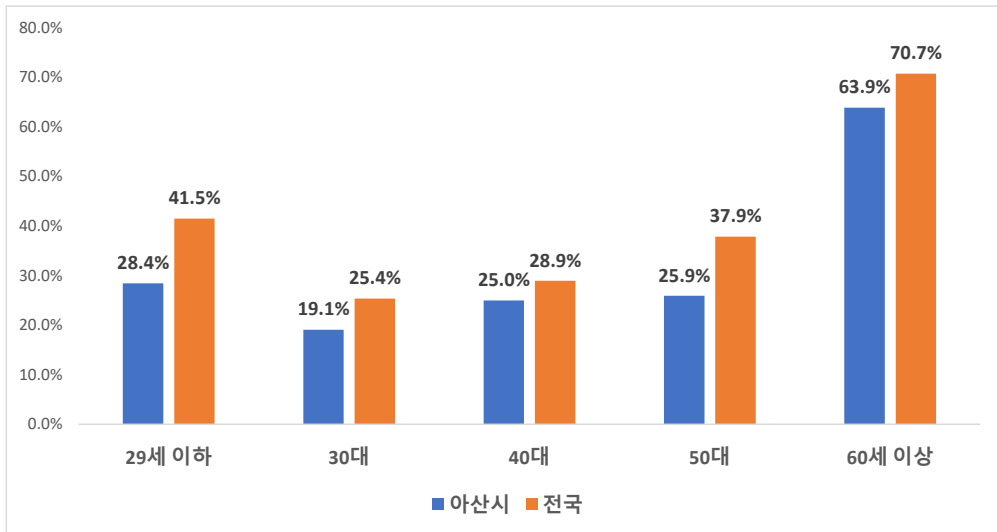
(2) 연령대별 비정규직 현황

- 2020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아산시와 전국 모두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으며, 30대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은 30대는 19.1%이고, 40대와 50대는 25.0%와 25.9%임. 그리고 29세 이하는 28.4%, 60세 이상은 63.9%임. 전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음. 이 중 전국 평균과 차이가 큰 것은 29세 이하(13.1%P)와 50대(12.0%P)임. 이는 제조업 대공장에서 신규 채용이 많고, 또한 이곳에서 50대 후반까지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 아산시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음. 2020년 기준 63.9%로 전년 64.5%보다 0.6%P 낮아졌음. 이들은 대부분 비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할 것으로 추정됨. 연령대별로 봤을 때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아산시의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음. 이들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비율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고령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 고령 노동자들의 문제는 고용형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나이를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 노동자 증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7]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3) 학력별 비정규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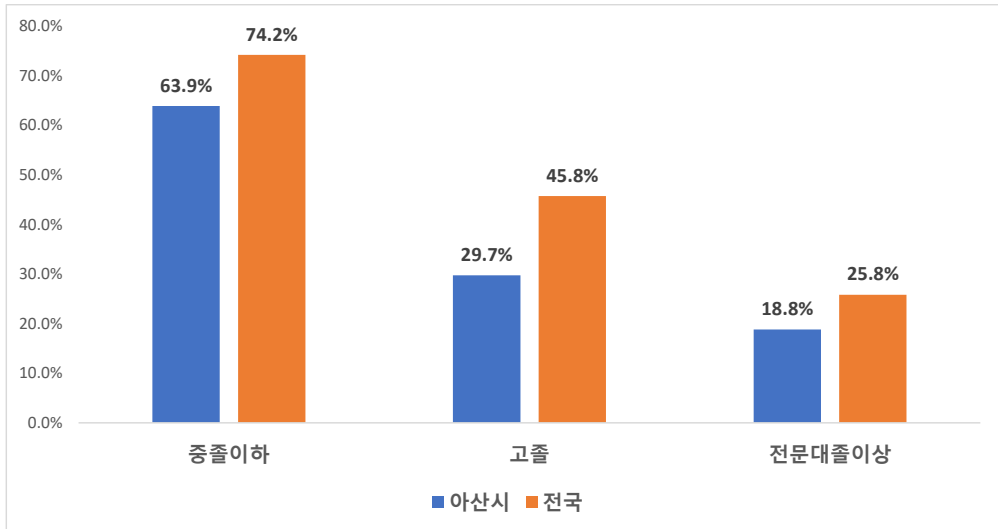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을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 63.9%, 고졸 29.7%, 전문대졸 이상 18.8%로, 교육 기간이 길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는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임. 즉,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고연령층 노동자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는 것임.

○ 연령대별 비교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 중 고졸의 격차가 가장 큼(15.8%p).

- 아산시는 고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8]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4) 근무 기간별 비정규직 현황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근무 기간별 비정규직 비율을 확인한 결과, 6개월 이하가 66.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 43.5%, 1년 이상 5년 이하 20.9%였음. 5년 이상 10년 이하는 10.6%, 10년 초과는 12.8%였음. 취업 후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집단에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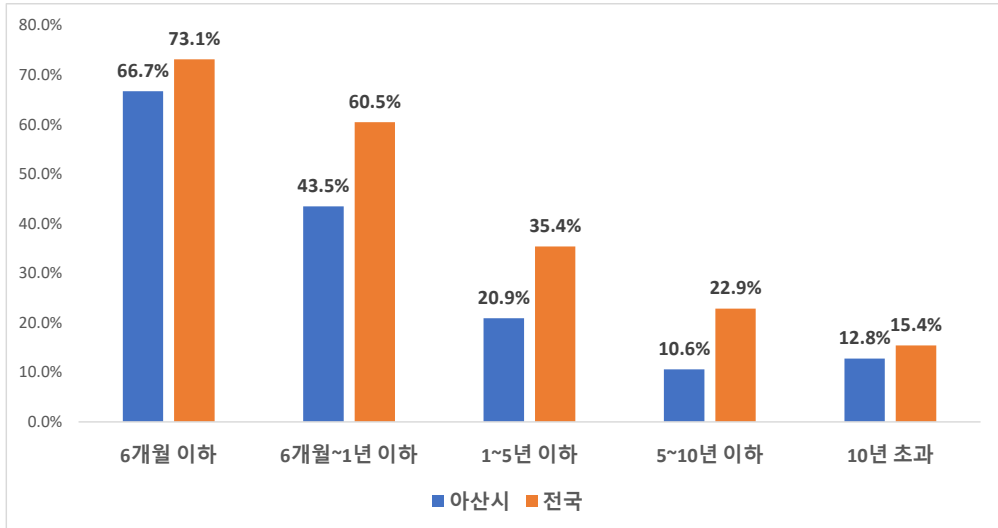
-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근무 기간별로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는데, 근무 기간이 6개월 이하 집단(6.4%P)과 10년 초과 집단(2.6%P)은 전국 평균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게 났음. 나머지 집단은 아산시가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았음.

○ 한편, 2019년 조사에서는 근무 기간 10년 초과인 장기근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3.6%로 매우 낮고 전국 평균과 차가 컸으나 2020년에는 12.8%로 나타났음.

-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통계청의 조사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사업장에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의 적용

없이 일하는 노동자로 추정됨. 비공식고용 상태에 오랫동안 놓여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근무 기간별 비정규직 비율



(5) 산업별 비정규직 현황

○ 2020년 기준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아산시에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13.8%로 지역 평균이나 전국 제조업 평균과 비교해 훨씬 낮음. 그러나 2018년 9.4%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사업장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라도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일자리는 일단 채용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아산시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임. 모두 50%가 넘음.

- 또한, △건설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등은 지역 평균보다는 높지만 10%P 이내로 차이가 나는 업종들임.

○ 반면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수도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 생업 등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1>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산업 | 전체 노동자 | 비정규직 | |
|-----------------|-----------|--------|---------------|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비율(%) |
| 농림어업 | 264 | 264 | 100.0% |
| 광업 | 126 | 0 | 0.0% |
| 제조업 | 58,520 | 8,092 | 13.8% |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247 | 0 | 0.0%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 1,261 | 0 | 0.0% |
| 건설업 | 10,992 | 3,901 | 35.5% |
| 도소매업 | 8,287 | 2,652 | 32.0% |
| 운수및창고업 | 5,373 | 563 | 10.5% |
| 숙박및음식점업 | 7,532 | 4,562 | 60.6% |
| 정보통신업 | 1,151 | 0 | 0.0% |
| 금융보험업 | 2,115 | 726 | 34.3% |
| 부동산업 | 1,829 | 568 | 31.1% |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3,850 | 956 | 24.8% |
| 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 13,082 | 7,283 | 55.7% |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4,358 | 1,187 | 27.2% |
| 교육서비스업 | 10,662 | 3,251 | 30.5%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0,289 | 3,034 | 29.5% |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1,571 | 1,079 | 68.7% |
| 협회,단체,수리및기타서비스업 | 2,000 | 517 | 25.9% |
| 합계 | 143,509 | 38,635 | 26.9% |

* 전체 임금노동자 1,000명대 이하는 응답자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

(6) 직업별 비정규직 현황

- 2020년 아산시의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이 높음.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직업들임. 그 외 직업들은 모두 지역 평균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 아산시에서 직업별로 임금노동자가 가장 많은 집단은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임. 2010년 기준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13.3%로 지역 평균보다 훨씬 낮음. 이는 산업별로 제조업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과 연관됨.
- 직업별 임금노동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사무종사자 역시 비정규직 비율이 10.1%에 불과하여 고용 안정성이 높은 편임.

<표 12>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구분 | 전체 노동자 수 | 비정규직 | |
|--------------|-------------|--------|---------------|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비율(%) |
| 관리자 | 997 | 0 | 0.0%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3,609 | 4,673 | 19.8% |
| 사무종사자 | 32,570 | 5,085 | 15.6% |
| 서비스종사자 | 10,333 | 5,638 | 54.6% |
| 판매종사자 | 4,741 | 2,284 | 48.2% |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144 | 0 | 0.0% |
| 기능원및관련 종사자 | 14,995 | 3,104 | 20.7% |
|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 34,735 | 4,683 | 13.5% |
| 단순노무종사자 | 21,386 | 13,168 | 61.6% |
| 합계 | 143,510 | 38,635 | 26.9% |

* 관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응답자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

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비교

(1) 성별 임금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을 보면, 남성-정규직의 임금이 361.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이 162.4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 아산시에서 고용형태별 임금수준은 남녀 모두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았음. 한편, 남성 비정규직(253.0만 원)은 여성 정규직(266.5만 원)보다는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13> 아산시 성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 남성 | 여성 | 전체평균 |
|------|-------|-------|-------|
| 정규직 | 361.3 | 266.5 | 331.9 |
| 비정규직 | 253.0 | 162.4 | 208.4 |
| 평균 | 338.2 | 228.1 | 298.6 |

(2) 연령대별 임금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은 40대 336만 원, 50대 330.6만 원, 30대 316.5만 원, 29세 이하 224.1만 원 60세 이상 184.5만 원임. 20대 이하부터 40대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다가, 50대부터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추세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을 고용형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정규직은 40대가 371.8만 원으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234.3만 원으로 가장 낮음. 또한, 비정규직은 30대가 242.6만 원으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156.3만 원으로 가장 낮음. 정규직은 40대까지 상승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30

대에 정점을 찍고 이후로는 지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연공급-호봉제 속성의 임금 패턴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추정됨. 60세 이후에는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은퇴 후 재취업이기 때문에 호봉제와는 무관함.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그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없음.

<표 14> 연령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 29세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
| 정규직 | 246.2 | 333.9 | 371.8 | 365.1 | 234.3 |
| 비정규직 | 168.3 | 242.6 | 228.7 | 232.2 | 156.3 |
| 평균 | 224.1 | 316.5 | 336.0 | 330.6 | 184.5 |

(3) 학력별 임금 비교

-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남. 전문대졸 이상 정규직은 362.7만 원이고, 중졸 이하 비정규직은 163.8만 원임.
- 비정규직이라도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으며, 전문대졸 이상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264.2만 원)은 중졸 이하 정규직의 평균임금(241.1만 원)보다 약 23.1만 원이 많음.

<표 15> 학력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 중졸 이하 | 고졸 | 전문대졸 이상 |
|------|-------|-------|---------|
| 정규직 | 241.1 | 294.9 | 362.7 |
| 비정규직 | 163.8 | 182.2 | 264.2 |
| 평균 | 191.7 | 261.4 | 344.1 |

(4) 근무 기간별 임금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근무 기간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근무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하지만, 비정규직은 10년 이하 노동자 사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명확하지 않음. 한편, 근무 기간 6개월 이하가 근무 기간 6개월에서 1년 이하 노동자보다 월평균 임금이 많다는 점도 특기할 부분임.
-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근무 기간 10년 초과가 434.5만 원으로 가장 많고, 6개월에서 1년 이하가 249.9만 원으로 가장 적음. 비정규직 역시 10년 초과가 364.8만 원으로 가장 많고, 6개월에서 1년 이하가 163.7만 원으로 가장 적음.
 - 한편, 근무 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월평균 임금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특히 비정규직에서 더 컸음. 이는 장기근무에 따라서 숙련(skill)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표 16> 근무 기간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 6개월 이하 | 6개월~1년 이하 | 1~5년 이하 | 5~10년 이하 | 10년 초과 |
|------|--------|-----------|---------|----------|--------|
| 정규직 | 263.0 | 249.9 | 278.0 | 301.5 | 434.5 |
| 비정규직 | 184.3 | 163.7 | 191.8 | 200.6 | 364.8 |
| 평균 | 210.5 | 212.4 | 260.0 | 290.8 | 425.6 |

(5) 산업별 임금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 산업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아산시에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351.4만 원으로 전국 제조업 월평균 임금 315.6만 원보다 35.8만 원가량 많았음.
 - 이러한 상황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 및 자동차 대기업 여러 개

가 아산시에 위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산업별로 봤을 때 아산시 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집단은 △전기가스 증기공기 조절공급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부동산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임. 이들은 2020년 아산시 전체 월평균 임금 275.5만 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임.
- 한편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2020년 아산시 전체 월평균 임금 275.5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었음.
- 한편,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150만 원에 못 미쳤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이 필요함.

<표 17> 산업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 | | 아산시 | 전국 | | | 아산시 | 전국 |
|-----------------------|------|-------|-------|------------------------|------|-------|-------|
| 농림어업 | 정규직 | | 297.8 | 부동산업 | 정규직 | 254.8 | 280.7 |
| | 비정규직 | 157.7 | 137.1 | | 비정규직 | 200.9 | 201.6 |
| | 합계 | 157.7 | 178.5 | | 합계 | 238.1 | 241.0 |
| 광업 | 정규직 | 350.0 | 341.4 | 전문 과학 기술 서 비스업 | 정규직 | 326.8 | 403.5 |
| | 비정규직 | | 299.5 | | 비정규직 | 341.9 | 306.6 |
| | 합계 | 350.0 | 331.7 | | 합계 | 330.6 | 383.8 |
| 제조업 | 정규직 | 359.7 | 334.3 | 시설관리사 업지원임대 서비스 | 정규직 | 256.0 | 269.2 |
| | 비정규직 | 299.8 | 231.4 | | 비정규직 | 187.4 | 179.5 |
| | 합계 | 351.4 | 315.6 | | 합계 | 217.8 | 219.0 |
| 전기가스 증기공기 조절공급 | 정규직 | 220.0 | 455.8 |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행정 | 정규직 | 339.0 | 369.9 |
| | 비정규직 | | 291.0 | | 비정규직 | 131.0 | 113.5 |
| | 합계 | 220.0 | 425.6 | | 합계 | 282.4 | 271.9 |
| 수도하수폐 기물처리원 료재생 | 정규직 | 365.1 | 319.9 | 교육서비 스업 | 정규직 | 410.9 | 367.6 |
| | 비정규직 | | 221.9 | | 비정규직 | 188.2 | 180.9 |
| | 합계 | 365.1 | 297.6 | | 합계 | 343.0 | 290.2 |
| 건설업 | 정규직 | 323.7 | 341.8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정규직 | 234.0 | 272.6 |
| | 비정규직 | 275.9 | 229.5 | | 비정규직 | 116.8 | 133.3 |
| | 합계 | 306.8 | 280.4 | | 합계 | 199.4 | 207.0 |
| 도소매업 | 정규직 | 286.9 | 296.9 | 예술,스포 츠, 여가 서비스업 | 정규직 | 312.4 | 278.7 |
| | 비정규직 | 148.9 | 172.1 | | 비정규직 | 169.4 | 162.0 |
| | 합계 | 242.7 | 252.3 | | 합계 | 214.2 | 210.1 |
| 운수및창 고업 | 정규직 | 275.6 | 309.0 | 협회단체 수리및기 타서비스 | 정규직 | 236.9 | 262.2 |
| | 비정규직 | 170.4 | 214.5 | | 비정규직 | 157.4 | 153.0 |
| | 합계 | 264.6 | 280.1 | | 합계 | 216.3 | 217.7 |
| 숙박및음 식점업 | 정규직 | 224.6 | 234.5 | 가구내고 용 및 자 가소비 | 정규직 | | 250.9 |
| | 비정규직 | 140.5 | 126.3 | | 비정규직 | | 98.6 |
| | 합계 | 173.7 | 163.9 | | 합계 | | 99.5 |
| 정보통신 업 | 정규직 | 423.7 | 392.3 | 국제 및 외국기관 | 정규직 | | 391.5 |
| | 비정규직 | | 304.9 | | 비정규직 | | 311.7 |
| | 합계 | 423.7 | 373.8 | | 합계 | | 379.7 |
| 금융보험 업 | 정규직 | 460.3 | 463.6 | 전체 | 정규직 | 331.9 | 332.2 |
| | 비정규직 | 252.4 | 271.9 | | 비정규직 | 208.4 | 182.6 |
| | 합계 | 388.9 | 394.0 | | 합계 | 298.6 | 275.5 |

(6) 직업별 임금 비교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직업별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관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고임금 집단’을 이루고, 사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이 ‘중간임금 집단’을 이루며,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저임금 집단’을 이루고 있었음.
- 아산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기능직 중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를 비교하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전자(333.3만 원)가 후자(310.7만 원)보다 더 많았는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반대로 전자(254.3만 원)보다 후자(296.0만 원)가 더 많았음.
- 2020년 기준 아산시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은 362.7만 원이고, 비정규직은 230.2만 원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가장 컸음. 다만, 이 직종은 전국 평균에서도 고용형태별 격차가 컸음. 한편,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고용형태별 격차가 전국 평균보다 아산시에서 더 적었음. 반면, 판매 종사자는 고용형태별 격차가 아산시가 전국 평균보다 더 컸음.

<표 18> 직업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1

| |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
| 아산시 | 정규직 | 518.6 | 362.7 | 359.3 | 255.2 | 260.3 |
| | 비정규직 | | 230.2 | 310.4 | 153.8 | 143.2 |
| | 평균 | 518.6 | 336.5 | 351.6 | 199.9 | 203.9 |
| 전국 | 정규직 | 649.0 | 377.4 | 342.5 | 262.8 | 276.7 |
| | 비정규직 | 572.2 | 252.9 | 224.5 | 128.3 | 171.2 |
| | 평균 | 636.9 | 344.3 | 320.1 | 186.1 | 222.1 |

<표 19> 직업별-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단위 : 만 원) 2

| | | 농림어업숙 | 기능원및관 | 장치,기계조작, | 단순노무 | 합계 |
|-----|------|-------|-------|----------|-------|-------|
| | | 련종사자 | 련종사자 | 조립종사자 | 종사자 | |
| 아산시 | 정규직 | 380.0 | 310.7 | 333.3 | 236.1 | 331.9 |
| | 비정규직 | | 296.0 | 254.3 | 158.9 | 208.4 |
| | 평균 | 380.0 | 307.7 | 322.6 | 188.5 | 298.6 |
| 전국 | 정규직 | 286.2 | 303.5 | 302.4 | 218.4 | 332.2 |
| | 비정규직 | 190.2 | 230.9 | 226.2 | 126.4 | 182.6 |
| | 평균 | 237.0 | 273.3 | 285.1 | 149.4 | 275.5 |

3)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간 비교

(1) 성별 노동시간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42.0시간으로 여성 38.0시간보다 4.0시간 정도 길었음.
-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42.7시간이고 비정규직이 34.8시간으로,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이 7.9시간 더 길었음.
 - 성과 고용형태 구분을 교차하면, 2020년 아산시에서 남성 정규직으로 주당 43.1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며, 여성 비정규직은 주당 평균 31.7시간 근무했음. 두 집단 간 주당 노동시간 차이는 11.4시간이었음.
-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의 경우에는 남성 43.1시간, 여성 41.7시간으로 성별 차이(1.4시간)가 크지 않았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은 37.7시간이고 31.7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차이(6.0시간)가 컸음.
 - 이는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육아 및 가사 일을 병행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표 20> 성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 남성 | 여성 | 전체평균 |
|------|------|------|------|
| 정규직 | 43.1 | 41.7 | 42.7 |
| 비정규직 | 37.7 | 31.7 | 34.8 |
| 평균 | 42.0 | 38.0 | 40.5 |

(2) 연령대별 노동시간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연령대별 주당 노동시간은 50대 가장 많았음. 그러나 60세 이상(35.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40.1시간(29세 이하)에서 41.5시간(50대)으로 차이가 별로 없었음.
- 정규직의 경우에는 연령대별 주당 노동시간이 60세 이상도 42.2시간으로, 가장 많은 50대 43.1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었음.
 - 연령대와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일하면, 대체로 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약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근무패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은 조금씩 짧아지고 있음.
- 한편, 비정규직은 모두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60세 이상이 32.2시간으로 가장 짧았음. 가장 길게 노동하는 것은 50대 비정규직으로 36.8시간이었음.

<표 21> 연령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 29세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 정규직 | 42.0 | 42.8 | 42.7 | 43.1 | 42.2 |
| 비정규직 | 35.4 | 33.9 | 35.0 | 36.8 | 32.2 |
| 평균 | 40.1 | 41.1 | 40.8 | 41.5 | 35.8 |

(3) 학력별 노동시간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은 중졸 이하는 37.6시간이고,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은 40.9시간과 40.7시간이었음.
-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최소 42.3시간(전문대졸 이상)에서 최대 43.3시간(중졸 이하)였고, 비정규직은 33.8시간(전문대졸 이상)에서 35.7시간(고졸)이었음.
- 학력별 평균을 냈을 때 중졸 이하가 주당 노동시간이 짧은 것은 이들이 주로 고연령대 노동자로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22> 학력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 이상 |
|------|------|------|---------|
| 정규직 | 43.3 | 43.2 | 42.3 |
| 비정규직 | 34.4 | 35.7 | 33.8 |
| 평균 | 37.6 | 40.9 | 40.7 |

(4) 근무 기간별 노동시간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가장 짧은 것은 6개월 이하 근무자 38.5시간이고, 가장 긴 것은 5년부터 10년 이하 근무자 41.8시간이었음.
-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을 근무 기간별로 보면, 1년부터 5년 이하가 41.9시간으로 가장 짧고, 6개월 이하가 44.0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10년 초과자가 31.6시간으로 가장 짧고 6개월 이하가 35.8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할 것임.

<표 23> 근무 기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 6개월 이하 | 6개월 ~1년 이하 | 1~5년 이하 | 5~10년 이하 | 10년 초과 |
|------|--------|---------------|---------|----------|--------|
| 정규직 | 44.0 | 42.7 | 41.9 | 42.7 | 43.1 |
| 비정규직 | 35.8 | 34.8 | 34.8 | 34.1 | 31.6 |
| 평균 | 38.5 | 39.3 | 40.4 | 41.8 | 41.7 |

(5) 산업별 노동시간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주당 노동시간은 운수 및 창고업이 43.8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 한편, 산업 및 직업의 경우 10개 이상으로 구분하기에, 표본 수가 작은 경우 통계 수치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표 23>에 제시된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통계는 인용과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아산시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속해 있는 제조업의 경우 2020년 주당 노동시간은 42.3시간으로 2019년 43.1시간보다 약 0.8시간 감소했음.
 - 2015년 아산시 제조업 노동자들이 평균 노동시간은 47.2시간이었음. 아산시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최근까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43.0시간이고 비정규직은 37.8시간임. 2019년 정규직이 43.2시간, 비정규직은 42.4시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 하반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본격화된 경기 불황이 이러한 제조업 비

정규직의 노동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20년 기준 아산시 정규직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산업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긴 것은 광업(45.0시간), 운수 및 창고업(44.3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44.2시간) 등임.

- 또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15.9시간 차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0시간 차이),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13.8시간 차이),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13.1시간 차이), 교육서비스업(11.6시간 차이), 도소매업(11.4시간 차이) 등임.
 -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최근 아산시에서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업종에서 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업종에서 단시간 파트타임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 24> 산업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 | | 아산시 | 전국 | | | 아산시 | 전국 |
|-----------------------|------|------|------|-------------------------|------|------|------|
| 농림어업 | 정규직 | | 45.4 | 부동산업 | 정규직 | 41.3 | 43.4 |
| | 비정규직 | 32.7 | 37.2 | | 비정규직 | 33.7 | 39.6 |
| | 합계 | 32.7 | 39.3 | | 합계 | 38.9 | 41.5 |
| 광업 | 정규직 | 45.0 | 43.9 | 전문 과학 기술 서 비스업 | 정규직 | 42.8 | 42.1 |
| | 비정규직 | | 46.8 | | 비정규직 | 37.1 | 36.2 |
| | 합계 | 45.0 | 44.5 | | 합계 | 41.4 | 40.9 |
| 제조업 | 정규직 | 43.0 | 43.5 | 시설관리사 업지원임대 서비스 | 정규직 | 43.0 | 43.5 |
| | 비정규직 | 37.8 | 38.8 | | 비정규직 | 37.7 | 38.5 |
| | 합계 | 42.3 | 42.6 | | 합계 | 40.1 | 40.7 |
| 전기가스 증기공기 조절공급 | 정규직 | 40.0 | 41.5 | 공공행정, 국방, 사회 보장행정 | 정규직 | 40.2 | 42.8 |
| | 비정규직 | | 39.4 | | 비정규직 | 26.4 | 24.4 |
| | 합계 | 40.0 | 41.1 | | 합계 | 36.4 | 35.7 |
| 수도하수폐 기물처리원 료재생 | 정규직 | 43.0 | 43.2 | 교육서비 스업 | 정규직 | 40.9 | 41.2 |
| | 비정규직 | | 38.2 | | 비정규직 | 29.3 | 28.6 |
| | 합계 | 43.0 | 42.1 | | 합계 | 37.3 | 35.9 |
| 건설업 | 정규직 | 43.2 | 43.6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정규직 | 41.1 | 42.1 |
| | 비정규직 | 40.8 | 38.0 | | 비정규직 | 26.1 | 26.3 |
| | 합계 | 42.4 | 40.6 | | 합계 | 36.6 | 34.6 |
| 도소매업 | 정규직 | 42.7 | 43.4 | 예술, 스포 츠, 여가 서비스업 | 정규직 | 42.9 | 42.6 |
| | 비정규직 | 31.3 | 33.8 | | 비정규직 | 27.0 | 30.7 |
| | 합계 | 39.1 | 40.0 | | 합계 | 30.9 | 35.6 |
| 운수및창 고업 | 정규직 | 44.3 | 45.2 | 협회단체 수리및기 타서비스 | 정규직 | 43.4 | 44.4 |
| | 비정규직 | 39.9 | 38.3 | | 비정규직 | 30.3 | 32.1 |
| | 합계 | 43.8 | 43.1 | | 합계 | 40.0 | 39.4 |
| 숙박및음 식점업 | 정규직 | 44.2 | 47.4 | 가구내고 용 및 자 가소비 | 정규직 | | 56.5 |
| | 비정규직 | 34.3 | 30.7 | | 비정규직 | | 28.4 |
| | 합계 | 38.3 | 36.5 | | 합계 | | 28.6 |
| 정보통신 업 | 정규직 | 41.9 | 42.1 | 국제 및 외국기관 | 정규직 | | 40.6 |
| | 비정규직 | | 37.5 | | 비정규직 | | 39.9 |
| | 합계 | 41.9 | 41.1 | | 합계 | | 40.5 |
| 금융보험 업 | 정규직 | 41.6 | 41.8 | 전체 | 정규직 | 42.7 | 43.1 |
| | 비정규직 | 36.9 | 37.6 | | 비정규직 | 34.8 | 33.2 |
| | 합계 | 40.0 | 40.3 | | 합계 | 40.5 | 39.3 |

(6) 직업별 노동시간 비교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직업별 주당 노동시간은 서비스 종사자(44.8시간)가 가장 길고, 그 뒤를 관리자(43.9시간),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43.7시간),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43.0) 등이 잇고 있음.
- 한편,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 차이가 각각 2.1시간과 4.5시간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6시간 차이), 판매 종사자(12.0시간 차이), 서비스 종사자(10.0시간 차이) 등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이 훨씬 많음.

<표 25> 직업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1

| |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
| 아산시 | 정규직 | 43.9 | 41.8 | 41.8 | 44.8 | 41.6 |
| | 비정규직 | | 29.2 | 35.6 | 34.8 | 29.6 |
| | 평균 | 43.9 | 39.3 | 40.8 | 39.4 | 35.8 |
| 전국 | 정규직 | 42.5 | 42.3 | 42.0 | 45.4 | 43.9 |
| | 비정규직 | 38.3 | 33.5 | 34.7 | 29.8 | 33.3 |
| | 평균 | 41.9 | 39.9 | 40.6 | 36.4 | 38.4 |

<표 26> 직업별-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2

| | | 농림어업숙 련종사자 | 기능원및관 련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 합계 |
|-----|------|---------------|---------------|-------------------|-------------|------|
| 아산시 | 정규직 | 40.0 | 43.0 | 43.7 | 42.5 | 42.7 |
| | 비정규직 | | 40.9 | 39.2 | 34.2 | 34.8 |
| | 평균 | 40.0 | 42.5 | 43.1 | 37.4 | 40.5 |
| 전국 | 정규직 | 45.9 | 44.1 | 44.6 | 44.6 | 43.1 |
| | 비정규직 | 41.4 | 38.7 | 40.3 | 30.5 | 33.2 |
| | 평균 | 43.6 | 41.9 | 43.6 | 34.0 | 39.3 |

4

아산시 주요 3대 업종 임금노동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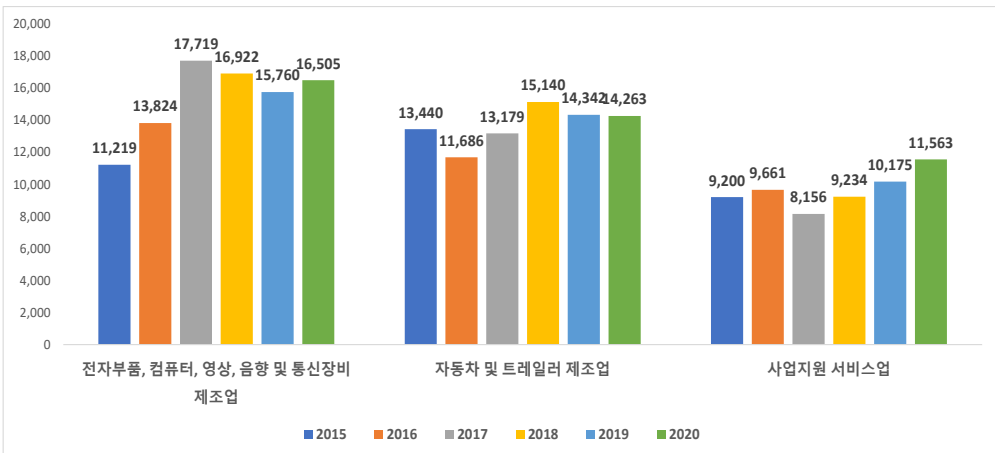
4. 아산시 주요 3대 업종 임금노동자 현황

- 앞 장에서는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40.8%로 전국 임금노동자에서의 비중(19.4%)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했음. 여기서 더 나아가 산업 중분류 수준을 검토한 결과,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이하, '전기전자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하 '자동차 제조업')의 노동자 수가 1만 명을 상회함을 확인했음. 아울러 최근에는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노동자 수도 1만 명을 넘어섰음.
- 2020년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노동자 수가 3번째로 많았음.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서비스업 노동자 수가 3번째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다시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졌음. 다른 도시나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은 9.1%로, 전국 평균인 5.5%보다 3.6%p가 높음.⁹⁾ 아래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노동자 현황을 전기전자 제조업 및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 현황과 함께 검토할 것임.
- 아산시에서 노동자 수가 많은 산업 중분류상 3개 업종의 개괄적 추이는 다음과 같음. 먼저, 아산시에서 전기전자 제조업 임금노동자는 2016년 1만 3,824명에서 2017년 1만 7,719명으로 급증하였고, 그 후 등락을 오가고 있음. 아산시 전기전자 제조업 노동자는 2020년 기준으로 1만 6,505명으로 산업 중분류에서 가장 많음.

9)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고용 알선이나 인력 공급 등의 고용 지원 서비스업 △경비나 경호 또는 보안 시스템 운영 등의 보안 서비스업 △여행상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업 △문서 작성이나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업 등이 해당함. 아산시는 과거 온양의 온천 관광지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여행업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음. 또한, 제조업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파견업체들 역시 많음. 이에 따라 아산시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다음으로, 아산시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 수는 2016년 1만 1,686명에서 2018년 1만 5,140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했음. 2020년 기준으로 아산시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는 1만 4,263명으로 전기전자 제조업 다음으로 수가 많음.
- 마지막으로, 아산시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금노동자는 2016년 9,661명에서 2017년 8,156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019년에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 기준으로 1만 1,563명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10] 아산시 주요 3대 업종 노동자 수 추이(2015~2020)



- 아래에서는 아산시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다른 지역과도 차이를 보이는 ‘3대 업종’인 전기전자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노동자 현황과 특성을 검토할 것임(아산시의 산업 중분류별 임금노동자 현황은 <부록> 참고).

1) 3대 업종 임금노동자의 일반적인 현황

(1) 고용형태별 분포

- 아산시 3대 업종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분포를 확인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83.0%와 80.6%로 나타났다. 이는 아산시 제조업 평균인 86.2%보다 낮은 것임.
 - 2019년에는 아산시 전기전자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의 정규직 비율이 96.7%와 85.9%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사이 특히 전기전자 제조업의 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통계분류 변경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함.
- 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정규직 비율이 39.2%로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음. 아산시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73.1%임
- 이와 같은 업종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산시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표 27> 아산시 3대 업종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분포

| | 정규직 | 비정규직 | 전체 |
|-----------|-----------------|----------------|------------------|
| 전기전자 제조업 | 13,699 83.0% | 2,805 17.0% | 16,504 100.0% |
| 자동차 제조업 | 11,493 80.6% | 2,769 19.4% | 14,262 100.0%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4,538 39.2% | 7,025 60.8% | 11,563 100.0% |

(2) 성별 분포

- 아산시 3대 업종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세 업종 모두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기준 전기전자와 자동차 제조업은 남성 노동자 비율이 75.3%와 70.9%임. 여성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전기전자 제조업에서도 아산시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이 75% 오히려 자동차 제조업 보다 높음. 2017년 대폭 늘어난 아산시 전기전자 제조업 노동자 다수는 남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남성 노동자 비율이 75.6%로 아산시 전체 남성 노동자 비율 63.1%보다 높음.
- 아산시 주요 3대 업종 노동자의 성별 비중은 큰 차이가 없음.

<표 28> 아산시 3대 업종의 성별 임금노동자 분포

| | 남자 | 여자 | 전체 |
|-----------|-----------------|----------------|------------------|
| 전기전자 제조업 | 12,436 75.3% | 4,069 24.7% | 16,505 100.0% |
| 자동차 제조업 | 10,118 70.9% | 4,145 29.1% | 14,263 100.0%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8,745 75.6% | 2,819 24.4% | 11,564 100.0% |

(3) 연령대별 분포

- 2020년 기준으로 아산시 3대 업종 노동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자동차 제조업이 뒤를 이으며, 전

기전자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먼저,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50대 비중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도 19.9%를 차지하여 50대 이상이 과반임. 아산시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고령화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자동차 제조업은 40대의 비중이 35.1%로 가장 높고, 30대와 50대가 각각 24.8%와 23.4%로 뒤를 이음. 자동차 제조업은 30대부터 50대까지 중장년층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제조업은 30대의 비중이 58.4%로 과반이며, 그 뒤를 40대 31.0%가 잇고 있음. 30대와 40대의 비율이 90% 가까이에 육박하며, 60세 이상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음. 전기전자 제조업은 다른 2개 업종보다 노동자의 연령대가 낮다고 할 수 있음.

<표 29> 아산시 3대 업종의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분포

| | 29세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 전기전자 제조업 | 1,267 7.7% | 9,643 58.4% | 5,120 31.0% | 474 2.9% | 0 0.0% |
| 자동차 제조업 | 1,747 12.2% | 3,544 24.8% | 5,008 35.1% | 3,337 23.4% | 626 4.4%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1,918 16.6% | 2,116 18.3% | 1,187 10.3% | 4,045 35.0% | 2,298 19.9% |

(4) 학력별 분포

- 2020년 기준 학력별 분포를 보면 자동차 제조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고졸 중심이고, 전기전자 제조업은 전문대졸 이상임.

- 자동차 제조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 중에는 고졸이 각각 51.5%, 5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한편, 자동차 제조업은 전문대졸 이상(35.7%)이 그 뒤를 이어나,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중졸 이하(23.9%)가 전문대졸 이상보다 많음.
- 반면 전기전자 제조업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70.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졸 이하는 3.1%에 불과함. 이는 30~40대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0> 아산시 3대 업종의 학력별 임금노동자 분포

|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이상 | 전체 |
|-----------|----------------|----------------|-----------------|-------------------|
| 전기전자 제조업 | 507 3.1% | 4,406 26.7% | 11,592 70.2% | 16,505 100.0% |
| 자동차 제조업 | 1,818 12.7% | 7,348 51.5% | 5,096 35.7% | 14,262 100.00%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2,759 23.9% | 6,427 55.6% | 2,377 20.6% | 11,563 100.0% |

(5) 근무 기간별 분포

- 2020년 기준 근무 기간별로는 보면, 전기전자 제조업이 장기 근속자 중심이고,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단기 근속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전기전자 제조업은 근무 기간이 10년 초과한 노동자의 비율이 76.3%로 장기근무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 자동차 제조업은 1년부터 5년 사이 30.8%, 5년부터 10년 사이 25.4%, 10년 초과 27.5%로 상대적으로 근무 기간이 분산돼 있음.
- 한편,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년 이하 근무한 노동자의 비율이 54.8%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 뿐 아니라, 아산시 전체 노동자들의 근무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단기 근무자 비중이 높음.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근무 기간 1년 이하의 비중은 25.8%였음.

<표 31> 아산시 3대 업종의 근무 기간별 임금노동자 분포

| | 6 개 월 이하 | 6개월~1 년 이하 | 1 ~ 5 년 이하 | 5~10년 이하 | 10년 초 과 |
|-----------|----------------|---------------|----------------|----------------|-----------------|
| 전기전자 제조업 | 893 5.4% | 0 0.0% | 1,846 11.2% | 1,169 7.1% | 12,597 76.3% |
| 자동차 제조업 | 1,705 12.0% | 633 4.4% | 4,387 30.8% | 3,621 25.4% | 3,918 27.5%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5,253 45.4% | 1,086 9.4% | 2,925 25.3% | 1,222 10.6% | 1,077 9.3% |

(6) 직업별 분포

-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기전자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은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중심이고,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단순노무 종사자 중심임.
- 2020년 기준으로 전기전자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은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50.5%와 60.1%였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는 사무 종사자로 각각 29.1%와 22.2%였음.
- 한편,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60.6%로 가장 많았음. 그 뒤로 서비스 종사자 13.6%,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는 12.9%였으며, 사무 종사자는 3.4%에 불과했음.

<표 32> 아산시 3대 업종의 직업별 임금노동자 분포

| | 전기전자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관리자 | 144 0.9% | 112 0.8% | 0 0.0%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1,688 10.2% | 380 2.7% | 0 0.0% |
| 사무종사자 | 4,807 29.1% | 3,166 22.2% | 392 3.4% |
| 서비스종사자 | 126 0.8% | 0 0.0% | 1,578 13.6% |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1,047 6.3% | 893 6.3% | 1,097 9.5% |
|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 8,330 50.5% | 8,716 61.1% | 1,490 12.9% |
| 단순노무 종사자 | 362 2.2% | 996 7.0% | 7,007 60.6% |
| 전체 | 16,504 100% | 14,263 100% | 11,564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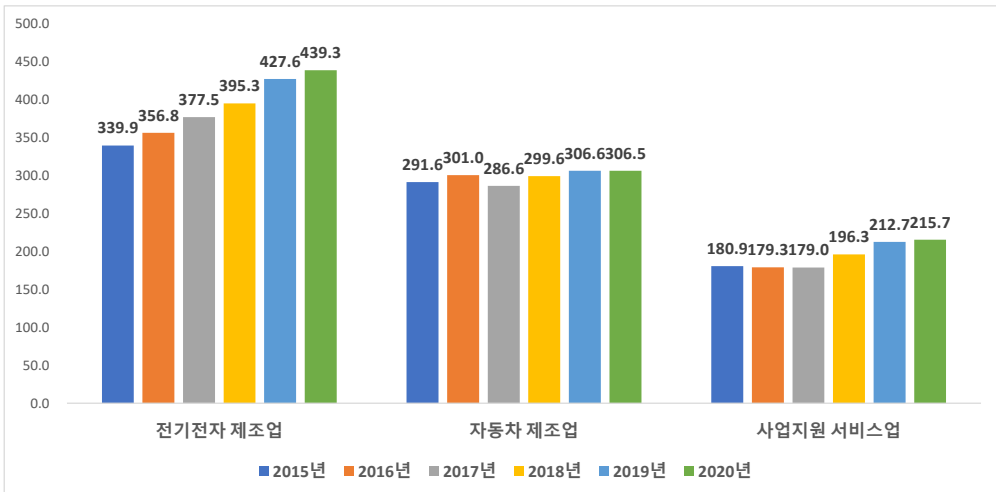
2) 아산시 3대 업종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 2020년 아산시 3대 업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전기전자 제조업이 439.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자동차 제조업은 306.5만 원,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15.7만 원이었음.
 - 2020년 전기전자 제조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23.6만 원임. 5년 전인 2015년에는 약 150만 원이었음.
- 2020년 기준 전기전자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 339.9만 원에서 5년간 99.4만 원이 상승했음. 매년 꾸준히 올랐음. 반면, 자동차 제조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은 변화가 적었음. 자동차 제조업 월평

균 임금은 2015년 291.6만 원에서 5년간 14.9만 원만 올랐고,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15년 180.9만 원에서 5년간 34.8만 원이 올랐음.

-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체돼 있다가 그 후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그림 11] 아산시 3대 업종의 월평균 임금 추이(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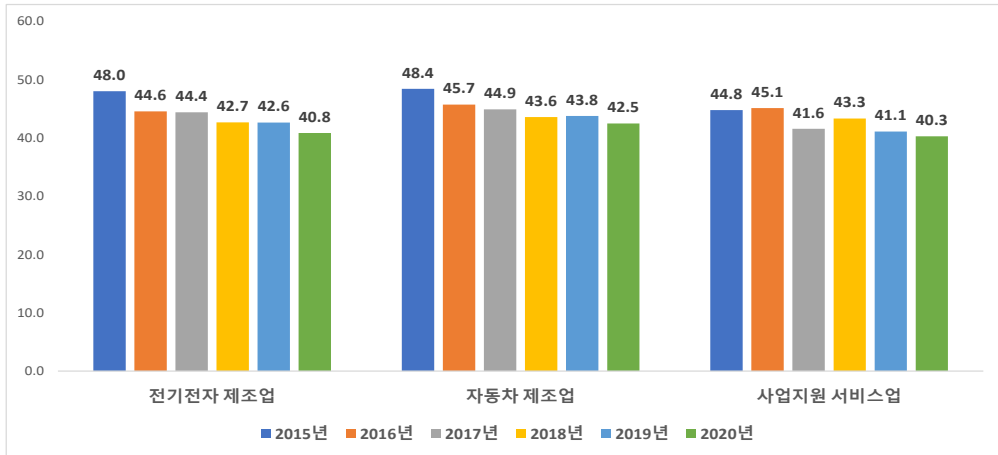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주당 노동시간은 전기전자 제조업 40.8시간, 자동차 제조업 42.5시간, 사업지원 서비스업 40.3시간이었음.

- 아산시 전체 주당 노동시간이 40.5시간이고, 아산시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2.3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전자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제조업 평균보다 약간 짧고, 나머지 두 업종은 평균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3대 업종 모두 노동시간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전기전자 제조업은 2015년 48.0시간보다 7.2시간이 줄었고, 자동차 제조업은 2015년 48.4시간보다 5.9시간 감소했으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15년 44.8시간에서 4.5시간이 줄었음.

[그림 12] 아산시 3대 업종의 주당 노동시간 추이(2015~2020)



- 2020년 기준 3대 업종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격차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가장 컸음. 정규직 327.0만 원 비정규직 221.2만 원으로 105.8만 원 가량 차이가 났음.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255.1만 원과 190.2만 원으로 64.9만 원가량 차이가 났음.

- 전기전자 제조업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로 추정됨.

- 다음으로, 세 업종 주당 노동시간의 고용형태별 격차는 5.0~7.5시간가량이었음. 전기전자 제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42.1시간과 34.6시간으로 7.5시간 차이가 났고, 자동차 제조업은 각각 43.6시간과 37.8시간으로 5.8시간 차이가 났으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43.3시간과 38.3시간으로 5시간가량 차이가 났음.

<표 33> 아산시 3대 업종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 고용형태 | 월평균 임금 | 주당 노동시간 |
|-----------|------|-----------|------------|
| 전기전자 제조업 | 정규직 | 433.7 | 42.1 |
| | 비정규직 | 466.7 | 34.6 |
| | 평균 | 439.3 | 40.8 |
| 자동차 제조업 | 정규직 | 327.0 | 43.6 |
| | 비정규직 | 221.2 | 37.8 |
| | 평균 | 306.5 | 42.5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정규직 | 255.1 | 43.3 |
| | 비정규직 | 190.2 | 38.3 |
| | 평균 | 215.7 | 40.3 |

5

아산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5. 아산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거주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5장에서는 아산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함.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산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임금노동자 수는 2020년 기준 16만 3,870명으로, 2019년 17만 345명에서 약 6천5백 명 감소했음. 다만,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금노동자는 14만 3,510으로, 여전히 2만 명가량 많음.

1) 임금노동자들의 고용형태별 현황

- 2020년 기준 아산시 소재 사업체들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은 72.9%, 비정규직은 전국 평균 분포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34>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현황

| 구분 | 아산시 | | 전국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정규직 | 119,494 | 72.9 | 12,220,612 | 62.1 |
| 비정규직 | 44,376 | 27.1 | 7,459,261 | 37.9 |
| 합계 | 163,870 | 100 | 19,679,873 | 100 |

2) 임금노동자들의 개인적 현황

- 2020년 기준 아산시 일자리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3.8%로 전국 평균 56.2%보다 7.6%p 높음. 이는 아산시 사업체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 중 30대와 40대가 각각 28.9%와 28.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그 뒤를 50대 18.7%와 29세 이하 17.6%가 잇고 있음. 60세 이상은 6.6%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전국 평균에서는 60세 이상이 13.6%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산시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다수라고 할 수 있음.
- 아산시 임금노동자는 학력별로는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중졸이하는 7.7%에 불과함. 특히 고졸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이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생산기능직의 젊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다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됨.
- 근무 기간을 확인한 결과 1~5년 이하가 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초과 노동자가 29.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전국 노동자들의 근무 기간별 비율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들이 평균 근무 기간이 다소 길었음.
- 아산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의 상황은 아산시 거주 임금노동자의 상황(제2장 참조)과 거의 유사함.

<표 35> 아산시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 구분 | 아산시 | | 전국 |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성 | 남성 | 104,485 | 63.8 | 11,058,699 | 56.2 |
| | 여성 | 59,385 | 36.2 | 8,621,174 | 43.8 |
| 연령 | 29세 이하 | 28,824 | 17.6 | 3,250,252 | 16.5 |
| | 30대 | 47,424 | 28.9 | 4,481,415 | 22.8 |
| | 40대 | 46,181 | 28.2 | 4,848,617 | 24.6 |
| | 50대 | 30,642 | 18.7 | 4,414,746 | 22.4 |
| | 60세 이상 | 10,799 | 6.6 | 2,684,843 | 13.6 |
| 학력 | 중졸이하 | 12,640 | 7.7 | 2,064,024 | 10.5 |
| | 고졸 | 68,727 | 41.9 | 6,910,835 | 35.1 |
| | 전문대졸이상 | 82,503 | 50.3 | 10,705,014 | 54.4 |
| 근속 기간 | 6개월 이하 | 26,147 | 16.0 | 3,344,585 | 17.0 |
| | 6개월~1년 이하 | 11,977 | 7.3 | 2,111,298 | 10.7 |
| | 1~5년 이하 | 49,141 | 30.0 | 6,625,194 | 33.7 |
| | 5~10년 이하 | 28,135 | 17.2 | 2,926,323 | 14.9 |
| | 10년 초과 | 48,471 | 29.6 | 4,672,472 | 23.7 |
| 합계 | | 163,870 | 100 | 19,679,873 | 100 |

3) 임금노동자들의 산업별 및 직업별 현황

- 2020년 기준 아산시 소재 사업체들의 산업별 임금노동자 수를 확인한 결과, 제조업이 49.8%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금노동자들의 제조업 비율인 40.8%보다 더 높았음. 이는 아산시에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아산시 소재 제조업 사업체로 일을 하러 오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노동자 비중은 9.2%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았음. 그 뒤를 교육서비스업(7.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9%)이 이었음.

- 한편, 아산시 소재 사업체에서 도소매업(아산시 4.3%, 전국 10.4%)이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아산시 5.9% 전국 11.7%) 일자리 비중은 전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임.

<표 36>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산업별 현황

| 산업명 | 아산시 | | 전국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농림어업 | 405 | 0.2 | 116,284 | 0.6 |
| 광업 | 126 | 0.1 | 10,856 | 0.1 |
| 제조업 | 81,645 | 49.8 | 3,823,985 | 19.4 |
|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 1,157 | 0.7 | 81,495 | 0.4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 1,400 | 0.9 | 118,850 | 0.6 |
| 건설업 | 9,230 | 5.6 | 1,488,575 | 7.6 |
| 도소매업 | 7,020 | 4.3 | 2,043,784 | 10.4 |
| 운수및창고업 | 4,613 | 2.8 | 823,098 | 4.2 |
| 숙박및음식점업 | 7,381 | 4.5 | 1,099,789 | 5.6 |
| 정보통신업 | 884 | 0.5 | 774,217 | 3.9 |
| 금융보험업 | 1,657 | 1.0 | 759,991 | 3.9 |
| 부동산업 | 1,612 | 1.0 | 363,700 | 1.8 |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2,501 | 1.5 | 1,027,753 | 5.2 |
| 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 15,109 | 9.2 | 1,082,149 | 5.5 |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3,434 | 2.1 | 1,242,329 | 6.3 |
| 교육서비스업 | 11,850 | 7.2 | 1,559,347 | 7.9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674 | 5.9 | 2,296,558 | 11.7 |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1,550 | 0.9 | 297,545 | 1.5 |
| 협회,단체,수리및기타서비스업 | 2,621 | 1.6 | 594,010 | 3 |
| 가구내고용 및 자가소비 | | | 66,253 | 0.3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9,306 | 0 |
| 합계 | 163,870 | 100 | 1,967,873 | 100 |

- 아산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업별 분포에서는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가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산업별로 봤을 때 제조업 노동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임. 사무 종사자는 23.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15.2%로 나타남.
- 한편, 아산시 소재 사업체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아산시 15.2%, 전국 23.9%), 서비스 종사자(아산시 6.1% 전국 9.5%)와 판매 종사자(아산시 3.0% 전국 7.2%) 일자리 비중은 전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임.

<표 37>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직업별 현황

| 직업 | 아산시 | | 전국 | |
|----------------|---------|-------|------------|-------|
| | 인원수(명) | 비율(%) | 인원수(명) | 비율(%) |
| 관리자 | 820 | 0.5 | 251,017 | 1.3 |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4,870 | 15.2 | 4,712,464 | 23.9 |
| 사무종사자 | 38,880 | 23.7 | 4,422,916 | 22.5 |
| 서비스종사자 | 10,070 | 6.1 | 1,876,787 | 9.5 |
| 판매종사자 | 4,914 | 3.0 | 1,425,375 | 7.2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144 | 0.1 | 49,875 | 0.3 |
|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14,343 | 8.8 | 1,698,236 | 8.6 |
|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 46,651 | 28.5 | 2,196,826 | 11.2 |
| 단순노무 종사자 | 23,177 | 14.1 | 3,046,379 | 15.5 |
| 합계 | 163,870 | 100 | 19,679,873 | 100 |

- 2020년 기준 아산시 소재 사업체 근무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07.5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임금(275.5만 원)뿐 아니라 아산시 거주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287.5만 원)보다도 높았음.
 - 이를 통해 아산시 소재 사업체들에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아산시 소재 사업체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38.1만 원으로 아산시 거주 정규직 평균(331.9만 원)보다 높음.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224.9만 원 역시 아산시 거주 비정규직 평균(208.4)보다 높은 수준임.
- 아산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0.8시간으로 아산시 거주 노동자 40.5시간보다 0.3시간 길었음. 비정규직은 아산시 소재 사업체 노동자와 거주 노동자가 각각 34.7시간과 34.8시간이었고, 정규직은 각각 43.1시간과 42.7시간이었음.
- 위의 결과를 통해서, 아산시 소재 사업체의 임금노동자들은 아산시 거주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시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8> 아산시 사업체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임금

| | 아산시 소재 사업체 노동자 | | 아산시 거주 노동자 | |
|--------|----------------|---------|------------|---------|
| | 월임금(만 원) | 주당 노동시간 | 월임금(만 원) | 주당 노동시간 |
| 정규직 | 338.1 | 43.1 | 331.9 | 42.7 |
| 비정규직 | 224.9 | 34.7 | 208.4 | 34.8 |
| 노동자 평균 | 307.5 | 40.8 | 298.6 | 40.5 |

- 이러한 점에서 아산시 소재 사업체 일자리들은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아산시에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 또한 비교적 고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6

- 마무리하며 -
주요도시 비교와 업종 / 직종별 취약부문

6. 마무리하며 : 주요 도시 비교와 업종/직종별 취약부문

- 아산시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임금 노동자의 40%가량이 상시적인 인력수요가 있는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아산시 노동자 중에서는 파견업체나 용역업체를 통해서 상용직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일례로 2020년 기준 아산시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43.0시간으로 2019년(43.2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비정규직은 37.8시간으로 2019년(42.4시간)과 크게 차이가 남. 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의 영향이 비정규직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됨. 그러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서만 파견, 용역업체 등을 통한 고용 여부와 노동자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건비 절감 및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파견, 용역과 같은 다층적인 고용관계 (multi-party employment)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별 고용조사> 문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상대적으로 사업지원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의 직종에서 파견용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0.5시간, 월평균 임금은 298.6만 원임. 이를 전국 평균 주당 노동시간 39.3시간, 월평균 임금 275.5만 원과 비교하면, 아산시 노동자들이 주당 노동시간은 0.8시간 많고, 월평균 임금은 23.1만 원 더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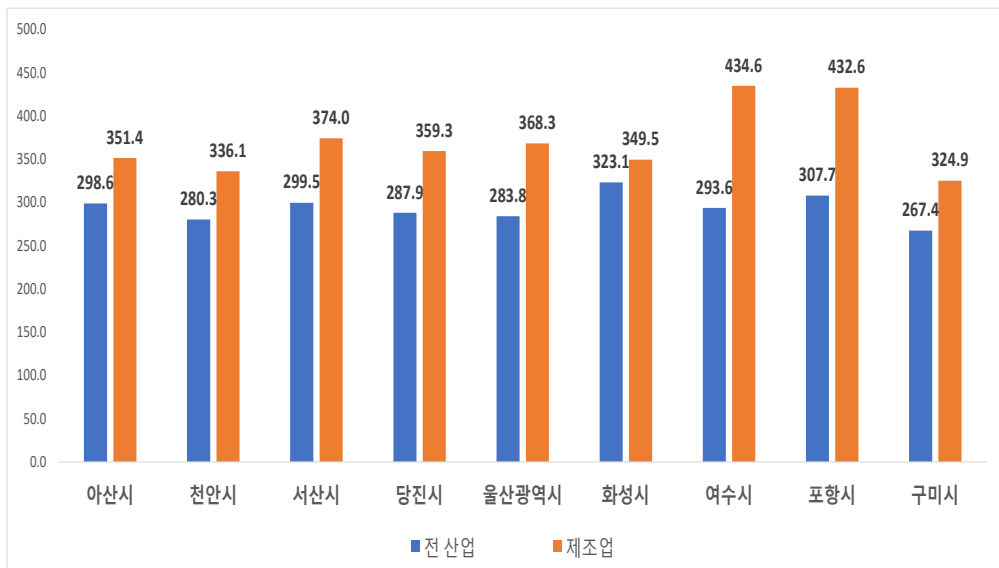
- 앞서 업종별 특성에서 아산시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과거부터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임. 그 결과 아산시 노동시장은 제조업의 상대적인 고임금 일자리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저임금 일자리가 혼재하는 특성을 갖게 됐음.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복지서비스)에 대한 실태파악과 같은 추가 조사가 필요함.

- 한편, 아산시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80만 원가량에 정체돼 있었으나, 법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됐음. 그러나 2019년 212.5만 원이었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215.7만 원으로 3.2만 원 인상되는 데 그쳐, 다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298.6만 원)을 충남 북부 제조업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서산시(299.5만 원)보다는 평균임금이 낮았으나 천안시(280.3만 원)이나 당진시(287.9만 원)보다는 높았음.

[그림 13] 아산 주변도시 및 주요 제조업 도시 노동자 2020년 월평균 임금



- 또한, 2020년 기준 아산시 제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351.4만 원)을 전국의 제조업 중심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천안시, 화성시, 구미시보다는 높았지만, 서산시, 당진시, 울산광역시, 여주시, 포항시보다는 낮았음. 아산시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조건은 전국 제조업 중심 도시 중에서 대략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에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업종별 평균임금의 차이와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됨.
- 마지막으로, 아산시 임금노동자 현황에서 업종 및 직업별로 비정규직 비율과 월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이는 향후 아산시 비정규직센터가 어떠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야할지 가능하기 위한 것임.
 - 다만 해당 집단의 노동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으로서 의미가 없기에,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가중치를 곱한 임금노동자 수가 2,000명 이상인 산업과 직업 중분류를 대상으로 작업을 검토를 진행함.
-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살펴봤을 때, 2020년 기준 아산시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종들은 아래 <표 38>과 같음.

<표 39>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종(산업 중분류)

| | 임금 노동자 수 | 비정규직 비율 | 월평균 임금 | 노동시 간(주) |
|---------------------|-------------|------------|-----------|-------------|
| 음식점 및 주점업 | 7,384 | 61.8% | 172.0 | 38.2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11,563 | 60.8% | 215.7 | 40.3 |
| 종합 건설업 | 3,071 | 54.8% | 288.4 | 41.6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5,497 | 45.6% | 199.6 | 37.5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6,776 | 39.0% | 185.3 | 34.5 |
| 교육 서비스업 | 10,662 | 30.5% | 343.0 | 37.3 |
| 전문직별 공사업 | 7,921 | 28.0% | 313.9 | 42.7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4,358 | 27.2% | 282.4 | 36.4 |

- 2020년 기준 업종 비정규직 비율이 아산시 평균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고, 월평균 임금이 220만 원 이하이면서 임금노동자 수도 많은 경우는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었음. 이러한 업종들은 비단 아산시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다수인 업종들이라 할 수 있음.
- 직업 중분류 수준에서 2020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아산시 평균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으면서 임금이 220만 원 이하인 직업들을 확인한 결과,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돌봄·보건 및 개인생활 서비스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었음. 저임금 단순노무 관련직의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도 적용에 대한 감시 등이 필요하며, 생활임금제도 도입 등의 지역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보호방안 또한 필요할 것임.

<표 40>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직종(직업 중분류)

| | 임금 노동자 수 | 비정규직 비율 | 월평균 임금 | 노동시 간(주) |
|---------------------|----------------|------------|-----------|-------------|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 4,803 | 95.2% | 200.8 | 38.3 |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2,899 | 79.4% | 135.9 | 30.9 |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5,173 | 60.4% | 184.0 | 39.8 |
| 돌봄·보건 및 개인생활 서비스직 | 2,759 | 55.5% | 190.4 | 34.8 |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3,917 | 54.9% | 202.9 | 40.3 |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3,242 | 43.6% | 161.4 | 33.9 |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5,491 | 43.1% | 177.7 | 37.8 |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2,807 | 42.6% | 303.0 | 42.9 |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7,743 | 26.2% | 381.7 | 37.8 |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2,849 | 25.1% | 257.6 | 42.1 |

<부 록> 2020년 산업 및 직업 중분류 아산시 임금노동자 현황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산업 및 직업중분류 정보 제공.

* 임금노동자 수가 2천 명 미만인 산업과 직업은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

<표 41> 산업중분류별 임금노동자 분포

| 산업 중분류 | 임금 노동자 수 | 비정규직 비율 | 월평균 임금 | 주당 노동시간 |
|----------------------|----------------|------------|-----------|------------|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 | 16,504 | 17.0% | 439.3 | 40.8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4,262 | 19.4% | 306.5 | 42.5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11,563 | 60.8% | 215.7 | 40.3 |
| 교육 서비스업 | 10,662 | 30.5% | 343.0 | 37.3 |
| 전문직별 공사업 | 7,921 | 28.0% | 313.9 | 42.7 |
| 음식점 및 주점업 | 7,384 | 61.8% | 172.0 | 38.2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6,776 | 39.0% | 185.3 | 34.5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516 | 7.9% | 308.4 | 42.8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5,497 | 45.6% | 199.6 | 37.5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4,358 | 27.2% | 282.4 | 36.4 |
| 전기장비 제조업 | 4,060 | 9.4% | 365.2 | 42.0 |
| 보건업 | 3,513 | 11.2% | 226.7 | 40.7 |
| 종합 건설업 | 3,071 | 54.8% | 288.4 | 41.6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3,019 | 12.0% | 245.7 | 42.2 |
| 식료품 제조업 | 2,938 | 14.1% | 287.3 | 44.6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및가구 제외 | 2,736 | 14.3% | 286.9 | 42.1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192 | 10.9% | 299.0 | 44.7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2,112 | 0.0% | 317.1 | 42.5 |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2,096 | 9.6% | 270.9 | 46.7 |
| 건축기술엔지니어링기타과학기술서비스 | 2,030 | 13.1% | 307.7 | 43.3 |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 1,894 | 6.4% | 274.8 | 40.8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862 | 6.0% | 388.4 | 43.5 |
| 부동산업 | 1,829 | 31.1% | 238.1 | 38.9 |
| 1차 금속 제조업 | 1,311 | 17.5% | 426.0 | 44.6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264 | 0.0% | 329.7 | 43.0 |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1,255 | 8.9% | 236.3 | 39.5 |
| 금융업 | 1,034 | 0.0% | 467.6 | 42.1 |
| 보험 및 연금업 | 958 | 62.9% | 328.4 | 36.1 |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867 | 67.5% | 209.9 | 21.1 |
| 전문 서비스업 | 822 | 53.2% | 309.3 | 35.0 |
| 협회 및 단체 | 774 | 10.1% | 153.5 | 43.2 |

<표 42> 산업중분류별 임금노동자 분포(계속)

| 산업 중분류 | 임금 노동자 수 | 비정규직 비율 | 월평균 임금 | 주당 노동시간 |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704 | 70.2% | 219.5 | 40.9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94 | 63.3% | 220.1 | 35.7 |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677 | 21.3% | 361.1 | 41.1 |
| 연구개발업 | 628 | 22.0% | 473.8 | 41.2 |
| 우편 및 통신업 | 627 | 0.0% | 436.8 | 43.0 |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614 | 0.0% | 299.1 | 40.0 |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532 | 0.0% | 302.8 | 41.1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23 | 0.0% | 385.5 | 41.3 |
| 수도업 | 503 | 0.0% | 478.7 | 45.3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388 | 0.0% | 250.3 | 42.9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 376 | 0.0% | 232.5 | 40.0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70 | 31.1% | 259.7 | 45.5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367 | 0.0% | 335.8 | 42.6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53 | 33.4% | 319.4 | 44.5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289 | 0.0% | 340.0 | 46.0 |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264 | 55.3% | 222.6 | 33.4 |
| 수상 운송업 | 259 | 0.0% | 433.5 | 40.0 |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 252 | 0.0% | 425.0 | 40.0 |
| 가구 제조업 | 247 | 0.0% | 200.0 | 40.0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247 | 0.0% | 220.0 | 40.0 |
| 음료 제조업 | 148 | 0.0% | 300.0 | 40.0 |
| 숙박업 | 148 | 0.0% | 260.0 | 40.0 |
| 임업 | 146 | 100.0% | 180.0 | 22.0 |
| 방송업 | 146 | 0.0% | 300.0 | 40.0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44 | 0.0% | 400.0 | 45.0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44 | 0.0% | 500.0 | 60.0 |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144 | 0.0% | 250.0 | 48.0 |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126 | 0.0% | 350.0 | 45.0 |
| 출판업 | 126 | 0.0% | 500.0 | 42.0 |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123 | 100.0% | 200.0 | 52.0 |
| 농업 | 118 | 100.0% | 130.0 | 46.0 |
| 전체 | 143,507 | 26.9% | 298.6 | 40.5 |

<표 43> 직업중분류별 임금노동자 분포

| 직업 중분류 | 임금 노동자 수 | 비정규직 비율 | 월평균 임금 | 주당 노동시간 |
|---------------------|----------------|------------|-----------|------------|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0,421 | 15.9% | 352.1 | 40.8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 12,271 | 16.7% | 370.0 | 41.4 |
|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 11,025 | 13.4% | 295.7 | 44.2 |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7,743 | 26.2% | 381.7 | 37.8 |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7,523 | 16.4% | 229.8 | 39.3 |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6,101 | 12.7% | 412.0 | 42.0 |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5,491 | 43.1% | 177.7 | 37.8 |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5,173 | 60.4% | 184.0 | 39.8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4,988 | 13.3% | 280.5 | 44.6 |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4,803 | 95.2% | 200.8 | 38.3 |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3,917 | 54.9% | 202.9 | 40.3 |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3,242 | 43.6% | 161.4 | 33.9 |
|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3,192 | 3.9% | 370.0 | 42.9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2,929 | 17.0% | 338.3 | 42.3 |
|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 2,899 | 79.4% | 135.9 | 30.9 |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2,849 | 25.1% | 257.6 | 42.1 |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2,807 | 42.6% | 303.0 | 42.9 |
|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 2,759 | 55.5% | 190.4 | 34.8 |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2,189 | 16.7% | 274.1 | 44.8 |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2,040 | 12.9% | 263.3 | 44.0 |
|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2,018 | 5.6% | 284.8 | 41.5 |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1,816 | 26.4% | 275.6 | 46.1 |
| 기타 기능 관련직 | 1,662 | 30.7% | 284.2 | 41.8 |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1,537 | 7.7% | 422.9 | 45.1 |
| 농림·어업및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 1,427 | 74.4% | 118.6 | 28.8 |
| 영업직 | 1,378 | 54.4% | 304.2 | 40.1 |
|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 1,032 | 23.1% | 228.7 | 39.3 |
|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911 | 29.6% | 228.8 | 41.2 |
| 금융 사무직 | 879 | 0.0% | 485.8 | 42.5 |
|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866 | 0.0% | 443.4 | 43.3 |
| 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 및 관련직 | 745 | 65.8% | 176.5 | 25.6 |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 739 | 0.0% | 183.2 | 39.3 |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610 | 0.0% | 248.0 | 42.9 |
|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586 | 85.7% | 149.7 | 36.7 |
|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565 | 24.4% | 309.6 | 39.5 |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520 | 0.0% | 469.5 | 47.4 |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371 | 0.0% | 449.9 | 41.3 |
| 전문 서비스 관리직 | 356 | 0.0% | 562.8 | 40.0 |
|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 259 | 55.6% | 244.6 | 40.0 |

<표 44> 직업중분류별 임금노동자 분포(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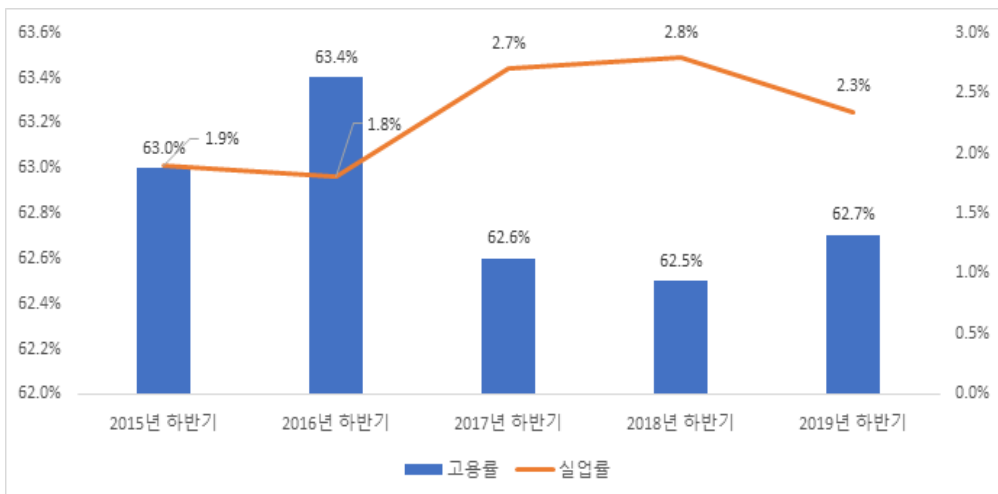
| 직업 중분류 | 임금 노동자 수 | 비정규직 비율 | 월평균 임금 | 주당 노동시간 |
|------------------------|----------------|------------|-----------|------------|
|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238 | 0.0% | 325.9 | 37.5 |
| 임업 숙련직 | 144 | 0.0% | 380.0 | 40.0 |
| 상하수도 및 재이용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126 | 0.0% | 480.0 | 40.0 |
|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 121 | 0.0% | 600.0 | 40.0 |
|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121 | 100.0% | 200.0 | 40.0 |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121 | 0.0% | 280.0 | 40.0 |
| 전체 | 143,510 | 26.9% | 298.6 | 40.5 |

<2019년 하반기 아산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현황 요약>

* 본 자료 보고서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9년 하반기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아산시의 임금노동자 수는 139,609 명으로, 2015년 120,149명에서 임금노동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은 다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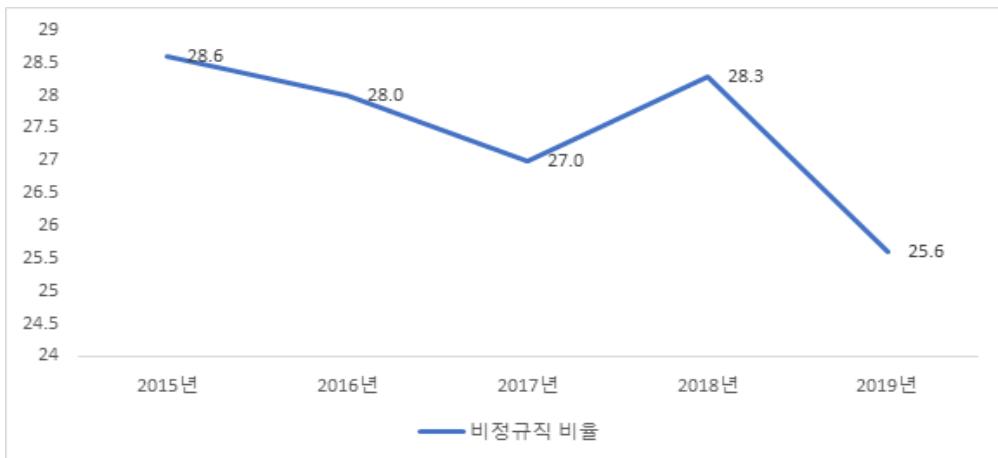
[그림 14] 아산시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2015~2019)



- 2019년 하반기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은 25.6%로,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비율은 중대형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은 도시의 특성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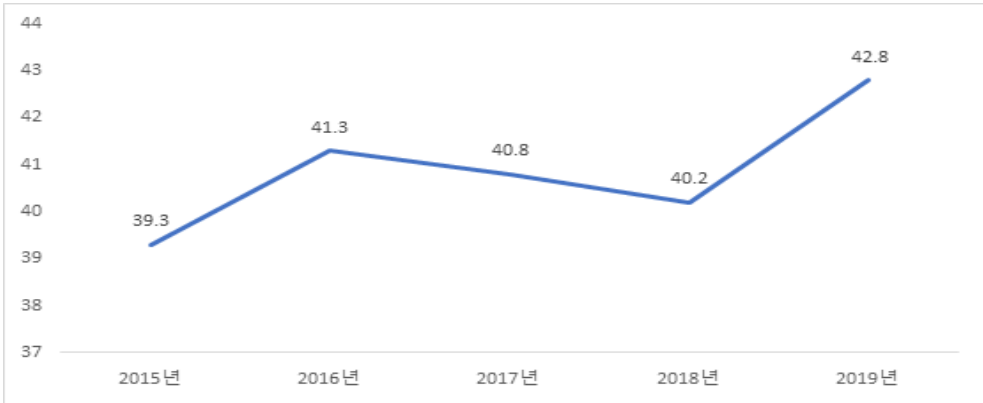
- 하지만 아산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비정규직 비율 28.6%에서, 이후 2017년 비정규직 비율 27.0%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였으며, 2018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확인.

[그림 15]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추이(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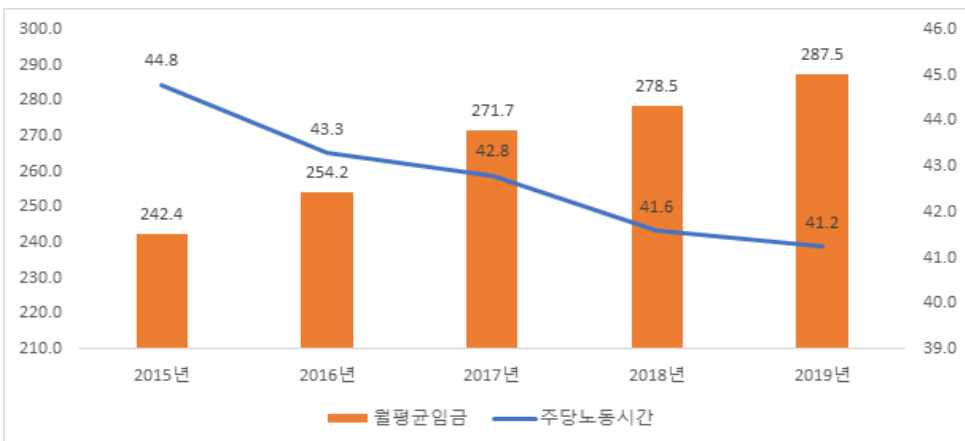
- 아산시의 산업별 임금노동자 분포를 살펴보면 아산시의 제조업 임금노동자 비중은 42.8%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아산시는 제조업 비중이 40% 전후인 제조업 도시.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8.3%로 두 번째였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8%, 교육서비스업 7.4%의 순서. 도소매업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5.6%로 전국 10.8%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특징.

[그림 16] 아산시 노동자 중 제조업 근무자 비율 추이(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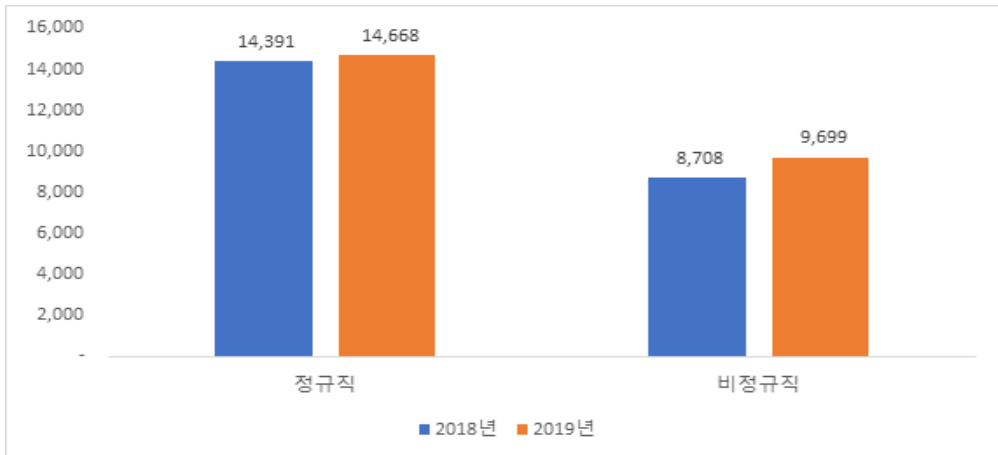
- 2019년 하반기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1.2시간으로 지난 2015년 44.8시간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 2015년 대비 3.6시간 감소.
- 2019년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87.5만원으로 2015년 242.8만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2015년 대비 약 45만원 상승. 2019년 전국 임금노동자 평균 275.4만원보다도 높아서 양호한 수준.
- 아산시의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면서 노동조건은 개선.

[그림 17] 아산시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임금 추이(2015~2019)



-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아산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시급을 추정해서 계산. 2019년 아산시 정규직의 평균 시급은 14,668원으로 비정규직 9,699원보다 5천원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18년과 비교하면 정규직은 시급이 277원 인상되었으나, 비정규직은 991원 인상. 그 결과 비정규직 시급은 2018년 정규직의 60.5%였으나 2019년에는 정규직의 66.1%로 시급격차는 다소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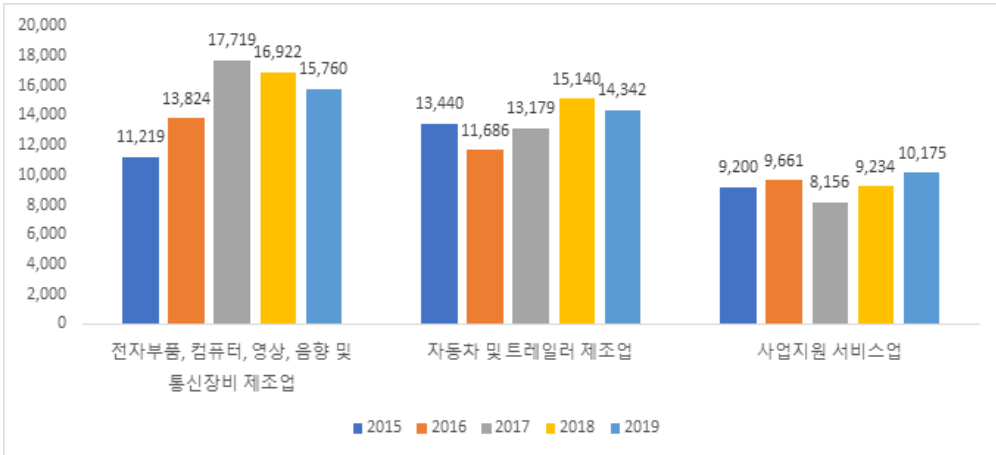
[그림 18] 2018-19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 비교



* 시급계산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

- 우선 산업중분류에서 노동자수가 많은 3업종의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5년에는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부터는 전기전자 제조업 노동자수가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수를 추월.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수는 2016년 9,661명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노동자수가 8,156명으로 감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0,175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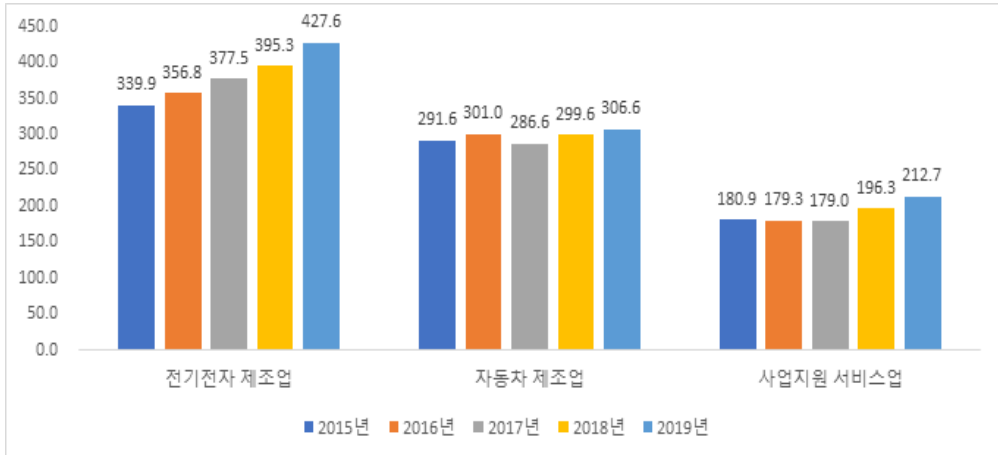
[그림 19] 아산시 주요 3대 업종 노동자수 추이(2015~2019)



○ 아산시 3대 업종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전기전자 제조업의 평균임금이 2019년 427.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8년 395.3만원에서 약 32만원이 상승. 전기전자 제조업은 꾸준히 임금이 상승하고 있음.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2017년에는 286.6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2019년 306.6만원으로 다시 300만원을 넘어섬. 이는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했는데, 고임금의 장기근무자들이 나간 자리를 신규 노동자로 충원하면서 평균임금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정.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19년 212.7만원으로 2018년 이후 180만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임금이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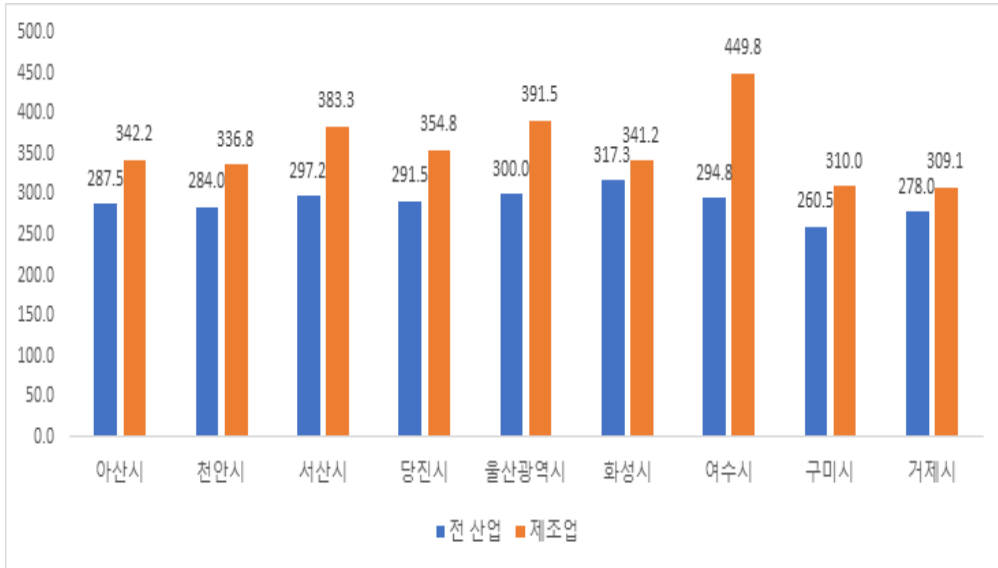
-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작년과 재작년에 인상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로 추정.

[그림 20] 아산시 3대 업종의 월평균임금 추이(2015~2019)



-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충남 북부의 제조업 중심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당진시나 서산시보다는 평균임금이 낮았으나 인접한 천안시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국의 제조업 중심도시들과 제조업 노동자 임금을 비교했을 때, 서산, 당진, 울산, 여수 등의 제조업 노동자 보다는 평균임금이 낮았지만, 화성, 구미, 거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제조업 중심 도시 중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업종별 평균임금의 차이와 기업규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그림 21] 아산 주변도시 및 주요 제조업 도시 노동자 2019년 월평균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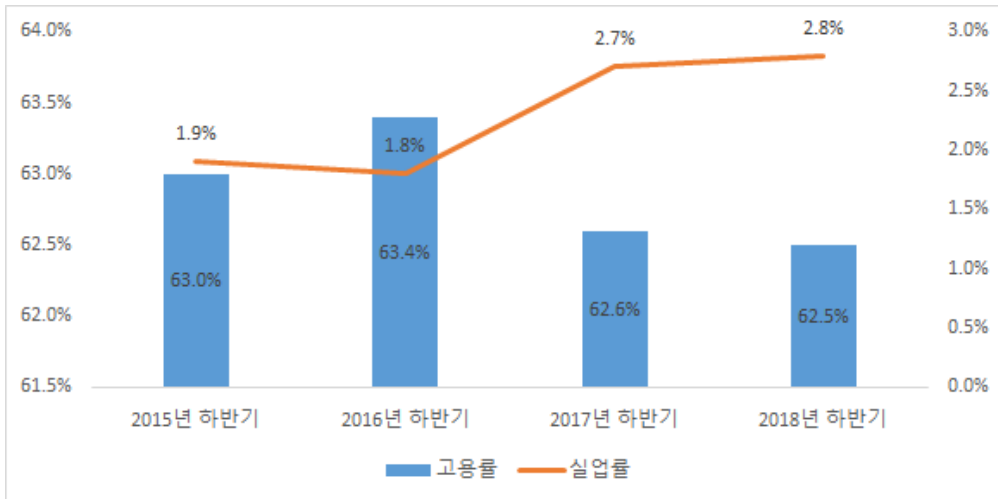


<2018년 하반기 아산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현황 요약>

* 본 자료 보고서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하반기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아산시의 임금노동자 수는 137,499 명으로, 2015년 120,149명, 2016년 124,500명, 2017년 135,018명에서 임금노동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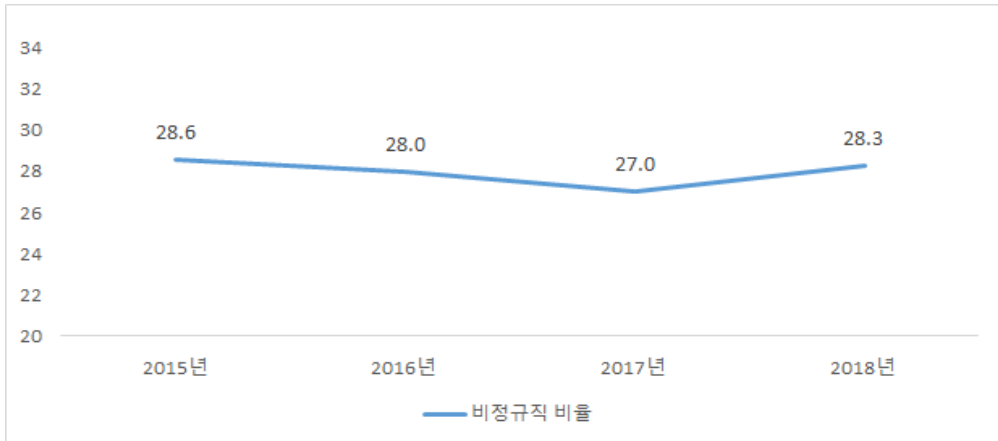
[그림 22] 아산시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2015~2018)



- 2018년 하반기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은 28.3%로,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 35.0%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임. 임금노동자 중에서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비율은 중대형 제조업체 비중이 높은 도시의 특성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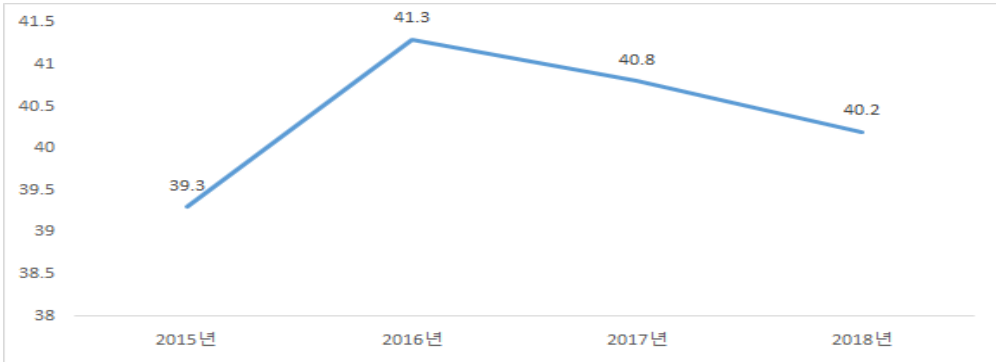
- 하지만 아산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비정규직 비율 28.6%에서, 이후 2017년 비정규직 비율 27.0%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에는 28.3%로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

[그림 23] 아산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추이(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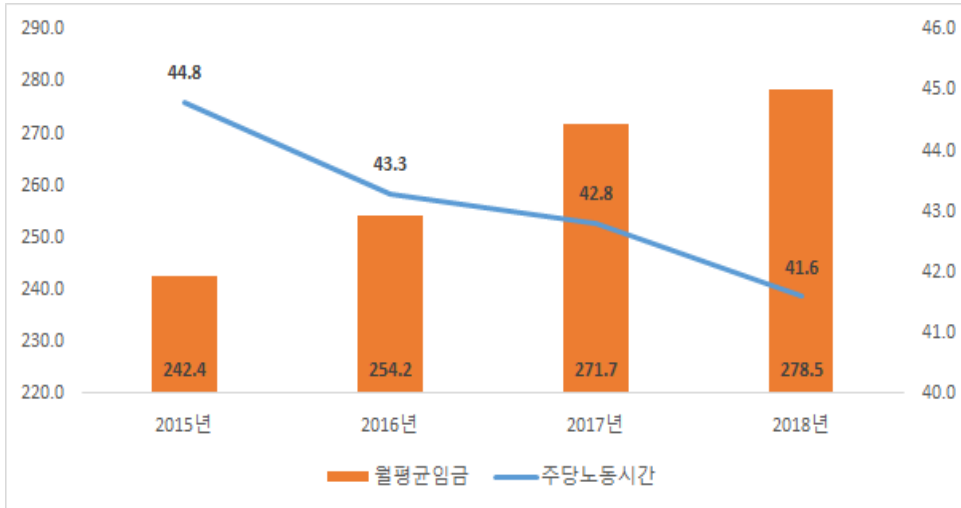
- 산업별 임금노동자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 아산시 제조업 임금노동자 비중은 40.2%로 지난 2016년 41.3%보다는 1.1%p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아산시는 제조업 비중이 40% 전후로 매우 높은 도시임. 다음으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8.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2017년 8.4%로 두 번째 비중이었던 건설업은 7.9%로 세 번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각각 7.9%와 7.7%의 순서. 여행업, 파견업 등이 포함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아산시 산업의 특징.

[그림 24] 아산시 노동자 중 제조업 근무비율 추이(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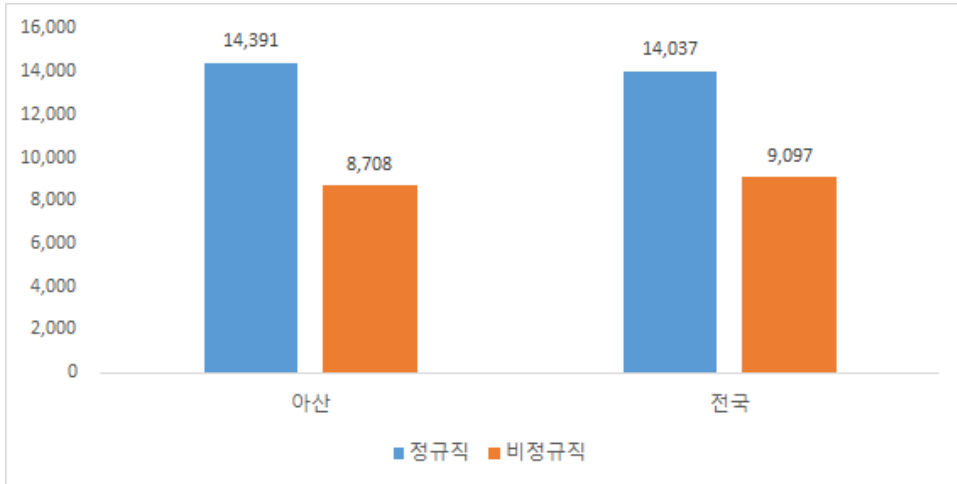
- 2018년 하반기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1.6시간으로 지난 2015년 44.8시간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 2015년 대비 3.2시간 감소. 한국의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 41.2시간과도 거의 차이가 없음.
- 2018년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78.5만원으로 2017년 271.7만원, 2016년 254.2만원, 2015년 242.8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2015년 대비 약 36만원 상승. 2018년 전국 임금노동자 평균 267.0만원보다도 20만원 이상 높아서 양호한 수준.
- 아산시의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면서 노동조건은 개선.

[그림 25] 아산시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임금 추이(2015~2018)



-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아산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시급을 추정해서 계산. 아산시 정규직의 평균 시급은 14,391원으로 비정규직 8,708원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아울러 전국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14,037원으로 아산시 정규직보다 조금 낮았으나, 비정규직의 평균시급은 9,097원으로 아산시 비정규직 평균시급보다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즉,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시급의 60.5%로 전국의 64.8%보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더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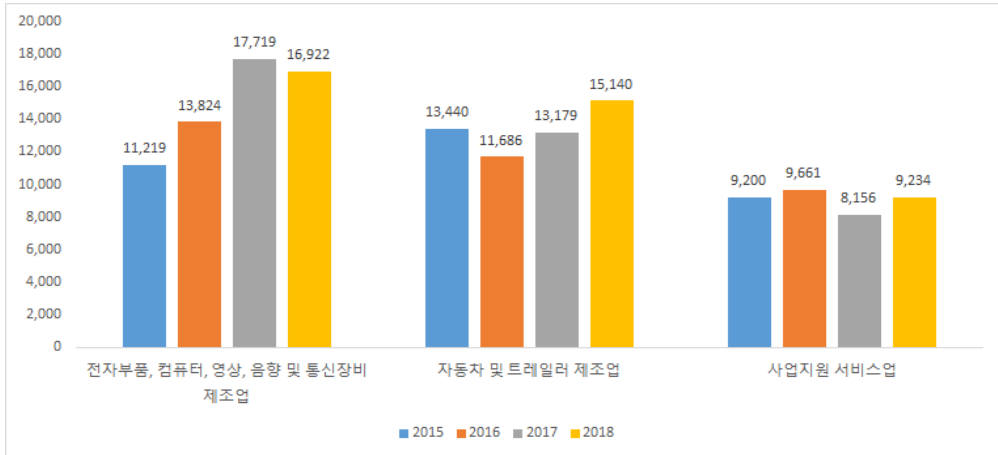
[그림 26] 2018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 비교



* 시급계산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

- 아산시에서 노동자수가 많은 3업종(중분류)의 지난 4년 동안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5년에는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부터는 전기전자 제조업 노동자수가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수를 추월. 그리고 전기전자 제조업 노동자수는 2017년 17,7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16,922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 아산시 자동차 제조업의 노동자수는 2016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5,140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수는 2016년 9,661명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노동자수가 8,156명으로 감소. 2018년에는 9,234명으로 다시 1만명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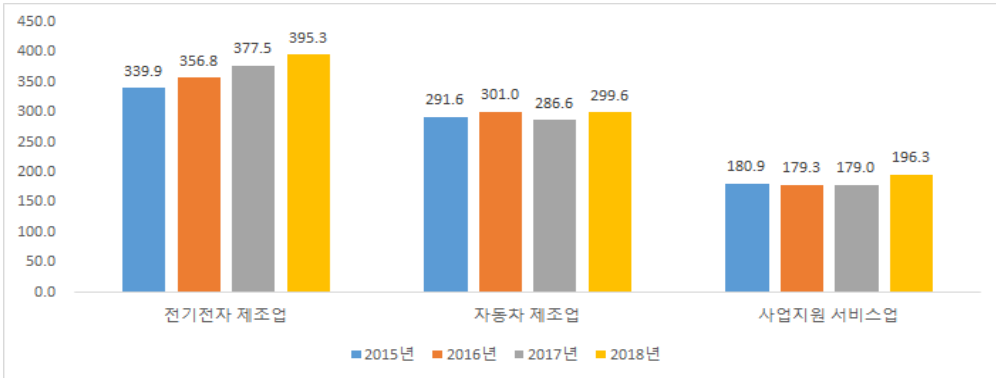
[그림 27] 아산시 주요 3대 업종 노동자수 추이(2015~2018)



○ 아산시 3대 업종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전기전자 제조업의 평균임금이 2018년 395.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377.5만원에서 약 18만원 상승. 전기전자 제조업은 꾸준히 임금이 상승.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2016년 301.0만원에서 2017년에는 286.6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8년 299.6만원으로 다시 증가. 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18년 196.3만원으로 2016년 이후 180만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임금이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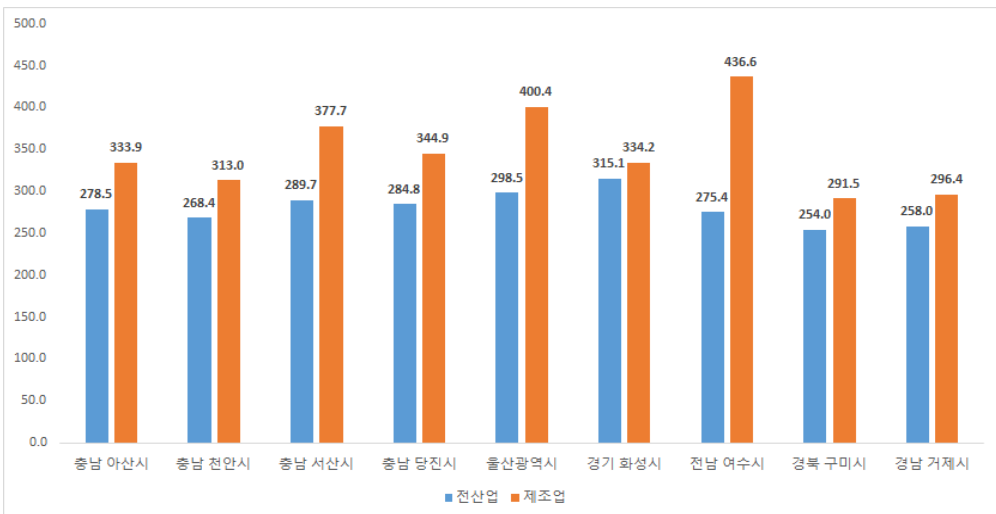
- 2018년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약 17만원의 큰 폭의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로 추정.

[그림 28] 아산시 3대 업종의 월평균임금 추이(2015~2018)



○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충남 북부의 제조업 중심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당진시나 서산시보다는 평균임금이 낮았으나 인접한 천안시보다는 높음. 그리고 전국의 제조업 중심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울산, 화성, 여수 등의 제조업 노동자보다는 평균임금이 낮았지만, 구미시, 거제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제조업 중심 도시 중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9] 아산 주변도시 및 주요 제조업 도시 노동자 2018년 월평균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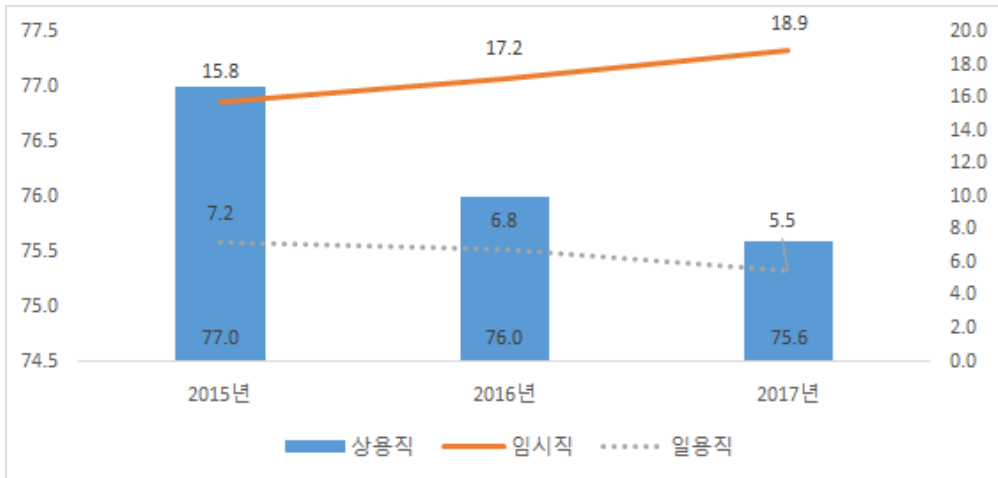


<2017년 하반기 아산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현황 요약>

* 본 자료 보고서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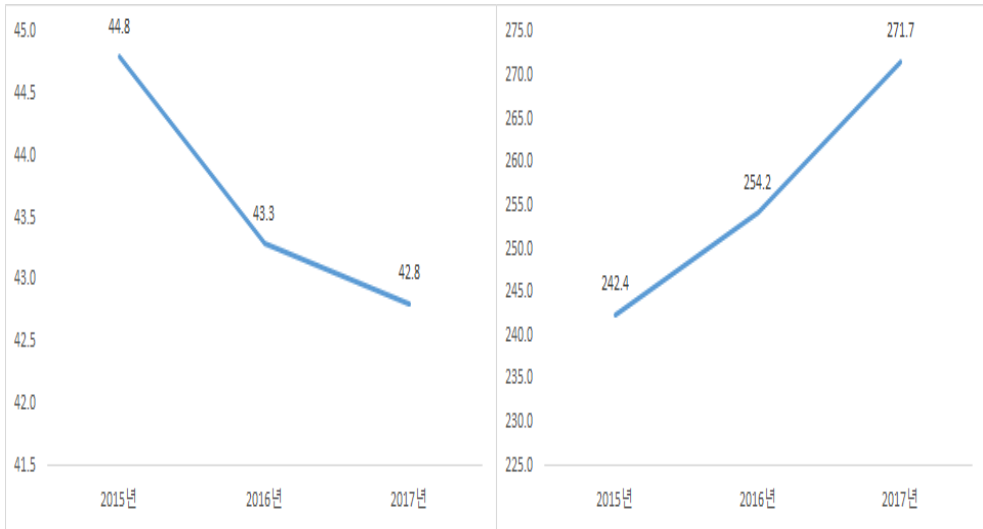
- 2017년 하반기 기준 아산시 임금노동자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아산시의 임금노동자 수는 135,018명으로, 2015년 120,149명, 2016년 124,500명과 비교했을 때 임금노동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업률도 2017년 2.7%로 전년 대비 0.9% 상승.
- 아산시의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비율은 24.4%로, 충청남도 비정규직 비율 26.9%와 한국 전체 임시일용직 비율 25.4%와 비교하면 여전히 다소 낮은 편.
- 하지만 아산시의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비율은 2015년 23.0%에서 2016년 24.0%, 2017년 24.4%로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용직은 감소 추세이나 임시직이 2015년 15.8%에서 2017년에는 18.9%로 2년 동안 4.1%가 증가.

[그림 30] 아산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율 추이(2015~2017)



- 산업별 임금노동자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임금노동자 비중은 40.8%로 지난 2016년 41.3%보다는 0.5%p 감소. 하지만 2015년 39.3%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 비중이 40% 전후로 여전히 매우 높은 편. 다음으로 건설업이 8.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도소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6.7%로 아산시에서 세 번째 비중을 차지. 여행업, 파견업 등이 포함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아산시 고용의 특징.
- 2017년 하반기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2.8시간으로 지난 2015년 44.8시간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 2015년 대비 2.0시간 감소. 하지만 한국의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42.7시간과도 거의 차이가 없음.
- 2017년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71.7만원으로 2016년 254.2만원보다 17만원, 2015년 242.8만원과 비교하면 약 29만원 상승.
-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아산시의 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그림 31] 아산시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좌)과 월평균임금(우) 추이(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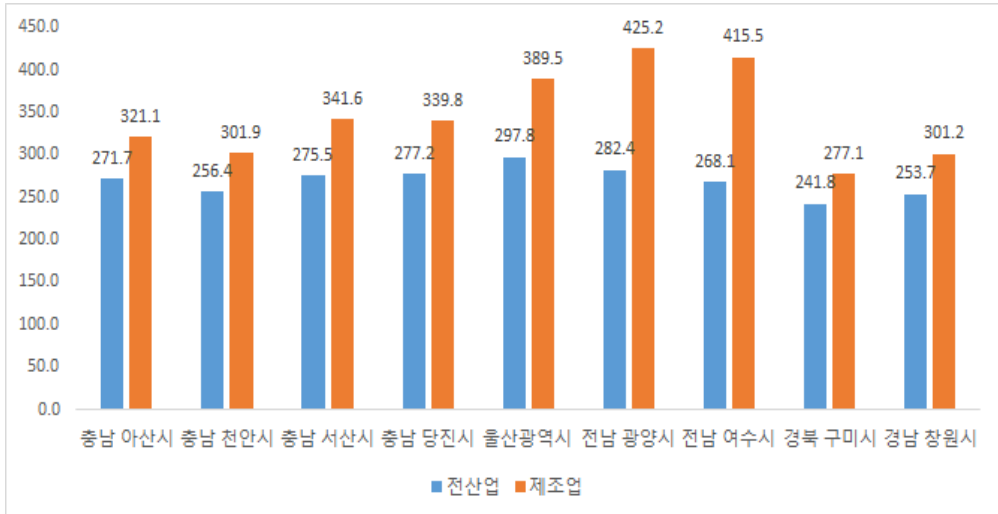


-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상용직보다 주당노동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임금 또한 매우 낮음. 아산시 상용직의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아산시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83.2%로 짧았으나, 임금은 50.5%에 불과하였음.
- 아산시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남성은 전국평균보다 낮음),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도 84.9%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아산시 여성 및 고령층 비정규직 문제에 주목할 필요.
- 아산시 제조업 중에서도 2015년 이후 전기전자 제조업의 고용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2015년에는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전기전자 제조업 노동자수가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수를 추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아산시에서 전기전자 제조업에서만 노동자수가 6천명 이상 증가. 전기전자 제조업 월평균임금은 377.5만원으로 제조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중분류)은 50대 이상 고령노동자가 57.8%를 차

지하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월평균임금은 지난 3년 동안 179~180만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 편, 아산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임금노동자수는 159,977명으로 아산시 거주 임금노동자수보다 2만 명 이상 많은데, 이는 아산시에 일자리가 많다는 의미. 아울러 아산시 사업체 일자리의 평균임금은 280.7만원으로 전국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임금 뿐 아니라 아산시 거주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임금 257.1만원보다도 약 23만원 높음.
- 앞서 업종별 특성에서 아산시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한 편으로 과거부터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 그 결과 제조업의 상대적인 고임금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저임금이 혼재. 따라서 사회서비스(복지서비스)에 대한 실태파악과 같은 추가 조사가 필요.
- 아산시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충남 북부의 제조업 중심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당진시나 서산시보다는 낮았고. 인근 천안시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국의 제조업 중심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울산, 광양, 여수 등의 제조업 도시보다는 평균임금이 낮았지만, 구미시, 창원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제조업 중심 도시 중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2] 아산 주변도시 및 제조업 도시 임금노동자들의 2017년 월평균임금 비교



- 마지막으로 아산시 노동자들 중에서는 파견업체나 용역업체를 통해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음. 따라서 아산시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불법파견실태조사, 파견노동자 추적조사 등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